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3월 26일 화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54호

청와대, 북에 특사 파견

청와대가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를 북한에 특사로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오전 10시 청와대는 남북관계 특별발표를 통해 임동원 특보를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4월 첫째주 평양에 파견한다고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박선숙 대변인은 이번 특사파견은 한반도의 긴장조성을 예방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준수하며 남북관계 합의사항 이행등 제반사항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밝혔다.

박대변인은 특사파견에서 논의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지금부터 협의할 것이고, 이번 발표는 북측의 요청에 의해 남과북이 공동으로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파견을 보도했다.

방송을 통해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가 4월초에 평양을 방문한다≫면서 ≪쌍방은 민족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와 함께 서로 관심하는 북남관계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번 특사파견은 김대중 대통령의 제의를 북이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렬 기자
2002/03/25 통일뉴스

시민사회단체 F-X사업 국정조사 요구

이달 말 차세대전투기 도입사업의 기종선정 발표를 앞두고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이 F-X(차세대전투기)사업의 투명성 보장과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오전 12시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는 경실련, 녹색연합,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F-X 사업 의혹 규명과 연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집회・퍼포먼스≫가 열렸다.

이날 퍼포먼스는 오전 11시에 진행되고 있던 국방부장관 주재 NGO초청 국방정책설명회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참가단체들은 F-X사업에 쏟아지는 수많은 국민적 의혹규명과 사업연기를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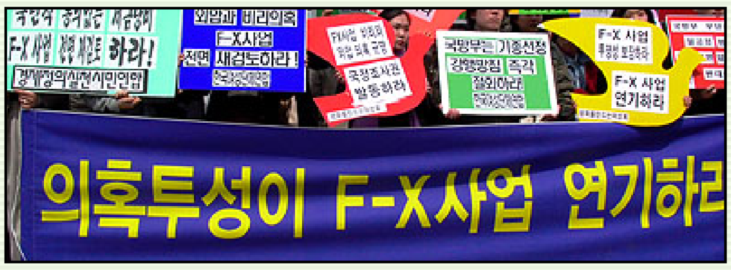
장유식 참여연대 협동처장은 발언을 통해 ≪현재 대부분이 미제인 해군과 공군의 첨단무기들을 하루빨리 자체생산해야 한다≫며 ≪이번 F-X사업은 우리가 자주국방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장유식 협동처장은 ≪만약 부품공급과 기술이전 등이 다른 기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F-15K를 국방부가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한다면, 지금 F-X사업에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이 모두 사실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될 것≫이라 밝히고, ≪이번 F-X사업은 대미종속에서 벗어난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이어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수 조원의 혈세를 낡은 F-15K 비행기 구입에 쏟아붓는 상황을 퍼포먼스로 표현해 지나가는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오경숙 여성연합 상임대표의 성명서 낭독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은 ≪F-X사업 추진에 있어 부당한 외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자주적 입장을 견지할 것≫과 ≪전투기 기종평가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것≫,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F-X사업 전면재검토와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2시 용산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는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독교 등의 종교인들이 모여 ≪F-X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조주형 대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종교인 기도회≫를 가졌다.

진관 불교인권위원회 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한국의 국방부는 미국의 국방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며 ≪망해 가는 보잉사를 살리기 위한 F-X사업은 율곡비리보다 더한 전투기 비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규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는 ≪대한민국은 김대중, 부시 두 대통령을 섬기고 있다≫며 ≪F-X사업을 보면서 민족적 자존심이 짓밟히는 현실을 보게된다≫고 개탄했다.

참가자들은 ≪우리의 작은 기도가≫란 제목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원불교 이혜화 교무와 예장 민중선교협의회 장창원 목사의 기도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했다.

원불교, 천주교, 불교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참가자들은 ▲차기전투기 도입사업 전면 재검토 ▲조주형 대령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최병수 화백이 낡은 부시얼굴 가면을 쓰고 F-15K 비행기를 수리하는 모습의 퍼포먼스를 진행해 많은 사진기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매향리 대책위 전만규 위원장은 ≪매향리는 전쟁연습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전투기 도입의 부당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과 국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F-X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달 말에 있을 차세대 전투기 기종선정 결과와 기종선정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동렬 기자
2002/03/25 통일뉴스

김원웅 의원 이회창 후보불가론 주장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대전대덕)의원이 이회창 대선후보 불가론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25일 ≪당을 살리기 위해서 이회창 총재는 대선 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대덕구청장 후보선출대회가 열린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우리 당은 당을 날리느냐 이 총재에게 충성하느냐는 선택에 기로에 놓여 있다≫며 ≪이 총재가 후보를 포기하고 민주당 한광옥 대표의 역할만 할 때 지역주의나 군사독재의 잔재가 없어지고 당도 대선에서 승리할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일 모레 이 총재의 행동을 지켜보고 만약 (대선에)나오겠다고 하면 나오지 말라고 하겠다≫며 ≪이 총재의 주 지지층이던 부산지역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총재 대세론은 이제 필패론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총재 대세론의 근거가 반DJ정서에서 나왔으나 이제 민주당이 탈DJ 정당으로 변모하고 있어 이 총재 대세론이 함께 무너지고 있다≫며 ≪이 총재는 이제 한나라당의 집권에 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김덕룡 의원이나 몇 몇 개혁파 의원들과 이 같은 의견을 나누었으며 공감대도 형성하고 있다≫며 ≪보좌진에 불과한 일부 부총재가 사퇴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 총재 자신이 한발 물러날 때 한나라당의 재집권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계개편을 논의할 자격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득권을 포기할 때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만약 경선에서 이겨 기득권을 포기하고 탈냉전, 탈지역주의, 탈맹주정치를 선언하면 적지 않은 사람이 호응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조성민 기자
2002/03/25 연합뉴스

2 노작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인류앞에 나선 초미의 과제

3 세기와더불어
리상촌을 혁명촌으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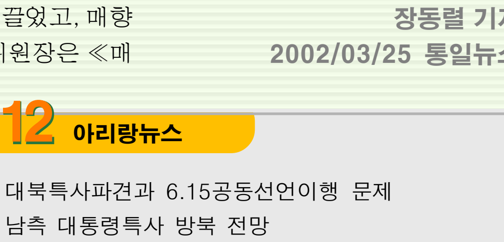
5 칭송
사람도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만수대 / 금장도 ≪다마스쿠스 칼≫

6 구국의 소리
한미호전집단의 무력증강책동
구국의 소리 뉴스 - 3월 24일
한국시장 외자에 전면개방
악의 제국

9 조선중앙방송
주체91, 3월 24일 보도
청년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 선군령도를 받드는 결사대

11 평양방송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

12 아리랑뉴스
대북특사파견과 6.15공동선언이행 문제
남측 대통령특사 방북 전망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 초읽기 돌입
북 아리랑 축전 사전취재 외국기자 25명 방북
공무원노조 탄압 강경투쟁 경고
발전파업 대량해고로 가는가
범대위, 4천여명 대량해고 규탄집회 열어
발전노조, 대화촉구
양대노총, 대화 통한 대결 촉구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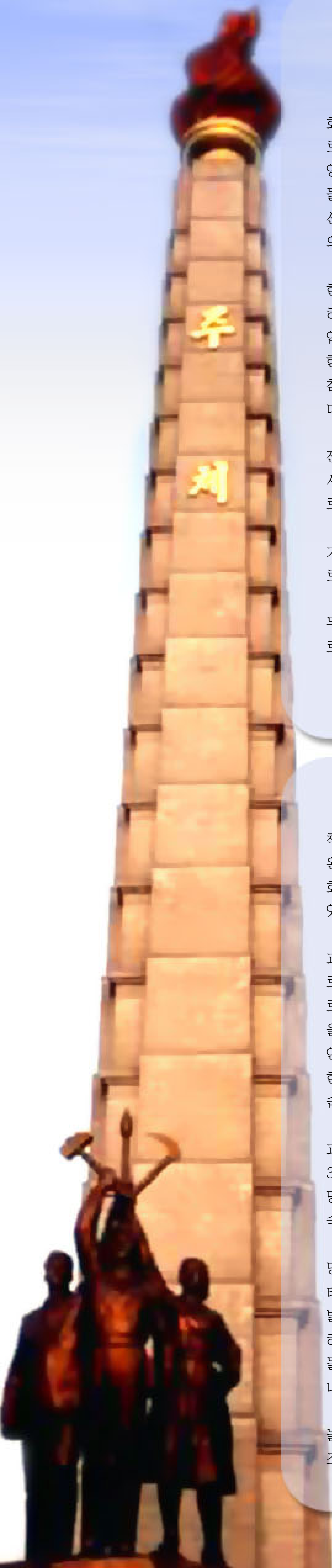


13

15 운동강좌
진보정당건설에 대하여2 (5)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인류앞에 나선 초미의 과제(발췌)

조선반도에서의 비핵, 평화를 위한 평양국제회의에 참가한 대표들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한 연설 / 주체75(1986)년 9월 6일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이 인류앞에 초미의 과제로 나서고 있는 때에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는 우리 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공동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조선반도에서의 비핵,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가 열리였습니다.

나는 국제평화의 해에 비핵,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가 우리 나라에서 열린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세계평화위업에 대한 높은 사명감과 우리 인민에 대한 굳은 련대감을 가지고 평양국제회의에 참가한 대표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핵전쟁의 위험을 막는것은 국제정치무대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절박한 문제의 하나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매우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으며 핵전쟁의 위험이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쪽과 남쪽에 무장한 군인들이 서로 총부리를 마주 대고 서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남쪽에는 핵무기로 장비한 4만여명의 미국군대와 거의 100만명에 달하는 남조선군대가 있으며 그들은 언제나 북을 향하여 공격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여기 평양은 미국의 핵탄두가 항시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들과 평화옹호투사들, 저명한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핵, 평화를 위한 회의를 한다는 사실자체가 핵전쟁의 위험성과 평화옹호투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하며 이번 회의의 의의를 가일층 부각시켜 줍니다.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평양국제회의는 제국주의핵광신자들과 호전분자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으로 될것이며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는 큰 힘과 고무를 주게 될것입니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와 핵전쟁의 위험은 미국의 대조선정책과 대아세아전략의 직접적인 산물입니다.

조선에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은 ≪두개 조선≫을 조작하여 우리 나라를 영구히 분렬시키고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계속 틀어 쥐려는것이며 남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공화국북반부와 아세아의 사회주의나라들, 나아가서 전 아세아대륙을 침략하려는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있으며 새 전쟁 도발책동에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잘 알고있는바와 같이 미국은 자그마한 남조선땅에 그 배치밀도에 있어서 나토지역보다 4배나 되는 방대한 량의 핵무기를 끌어 들였습니다. 미국은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앞으로 남조선에 새로운 핵무기와 화학무기들을 더 끌어 들이려 하고 있으며 수십개의 핵무기특수저장고를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핵전쟁을 위한 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는 총포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리고 있고 화약내가 짙게 풍기고 있습니다.

미제는 저들의 침략적인 대아세아전략을 수행하는데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 남조선사이에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기 위한 책동을 한층 로골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동지역에서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동이 날로 더욱 위험한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는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미국의 침략정책에 대처하여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민족앞에 지닌 중대한 책임과 세계평화위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하여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할데 대한 근본방침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평화제안들을 수많이 내놓았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기 위한 3자회담제안을 비롯하여 우리가 내놓은 공명정대한 평화제안들은 이미 세계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들어 와서만 하여도 군사당국자회담을 열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와 군사적대결을 해소할데 대한 중대한 발기를 하였으며 공화국정부성명을 발표하여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적극적인 평화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놓은 평화제안들은 오늘까지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조선반도의 정세는 날로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긴장완화와 평화를 바라지 않기때문이며 침략과 전쟁정책을 계속 추구하기때문입니다.

미국의 대조선정책, 대아세아전략에 변화가 없고 미국군대가 계속 남조선에 틀고 앉아 침략책동을 감행하는 조건에서는 결코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가 보장될수 없으며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도 해결될수 없습니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며 조선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모두 끌어 내가야 하며 미국군대가 철수하여야 합니다.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와 직결되여 있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떠나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남조선이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되고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으며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 나면 그것은 곧 세계적인 핵전쟁으로 확대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반도의 현 사태는 우리 인민뿐아니라 우리의 주변나라들과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있어서 엄중한 위협으로 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오늘 평화애호적인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와 인민들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에 대하여 주목을 돌리고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동투쟁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거하고 조선반도에 비핵지대, 평화지대가 창설되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전쟁발원지의 하나가 없어 지게 될것이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될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있으며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우리의 제안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주고 있는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모든 진보적나라들과 평화애호인민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끝)

2권 제4장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던 나날에

1. 손정도목사
2. 준엄한 봄
3. 카륜회의
4. 첫 당조직-건설동지사
5. 조선혁명군
6. 혁명시인 김혁
7. 1930년 여름
8. 두만강을 건너
9.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10. 잊을 수 없는 사람들

9. 리상촌을 혁명촌으로(2)

변대우 (변뜨로쯔끼)

어느날 변달환은 나를 찾아와 자기 아버지의 동향을 전해주었다. 아버지가 마을유지들앞에서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리상촌≫을 맡아줄 임자가 나타났다. 성주네가 그 임자이다. 그들이 하는 식이 사회주의라면 우리도 마음놓고 받아들일 수 있다. 성주를 나어린 청년으로만 봐서는 안되겠다. 우리들은 늙었고 시대에도 뒤떨어진 고물딱지들이니 젊은 것들에게 오가자를 통채로 떠맡기고 성주네가 하는 일을 힘껏 돕기나 하자≫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다른 유지들도 우리의 주장이 다 옳다고 하면서 탄복하더라고 하였다.

이런 동향을 듣고 나서 나는 변로인을 다시 찾아갔다.

≪고려공산당 당증을 돌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라고 말하니 로인은 그 당증을 거들떠보지고 않고 자기한테는 그따위 물건짝이 필요없다고 하였다.

필요없다니 돌려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야단이였다.

그후 당증은 우리 동무들 손에서 돌아갔다.

조국이 해방된 다음해인 1946년에 평양으로 찾아온 변대우로인에게 그때 일을 이야기했더니 로인은 깊은 감회에 잠긴 채 쓸쓸하게 웃었다. 그는 북조선전체가 하나의 리상촌, 리상천국으로 된 것을 보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면서 오가자에서 우리가 만나던 때를 회고하였다. 그때가 로인이 67살 되는 해였다. 나를 만난 그해에 로인이 길림시 이통현에서 별세하였는데 그 슬픈 소식을 나는 퍽 후에야 들었다.

변로인의 아들 변달환은 오가자에서 농민동맹 책임자로 활약하였다. 그는 우리의 지도밑에 반일투쟁을 하였다는 ≪죄≫로 1931년부터 여러해동안 신의주형무소에서 감옥살이를 하였다.

오가자의 혁명화를 위한 돌파구는 이렇게 열리었다.

유지들이 그 다음부터는 마을에 와 있는 조선혁명군 공작원들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다. 색다른 음식을 해놓고는 경쟁적으로 우리를 청하였다.

나는 오가자를 혁명화할 때 중국사람들을 쟁취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었다. 중국인 유지들을 쟁취하지 못하면 우리가 중부만주지방에 맘놓고 발을 붙일 수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설사 지주라고 하여도 포섭할 여지가 있으면 서슴없이 포섭하고 리용하였다.

그 당시 오가자근방에는 조가봉이라는 지주가 살고 있었다. 그가 한번은 땅때문에 다른 고장의 지주와 싸우다가 그 지주를 재판에 걸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조가봉은 고소장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 애를 먹고 있었다. 그 지주의 아들이 도회지에 가서 중학교를 졸업하였는데 그도 고소장을 쓸 줄 몰랐다. 아마 그가 중학교에 다니었다고는 하지만 건달을 부리며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조가봉은 오가자에서 한의노릇을 하던 김해산에게 고소장을 써줄 인물을 한 명 물색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부탁을 받은 김해산이 하루는 나를 찾아와 고소장을 쓸줄 아는가고 물었다.

우리가 지하혁명활동을 하던 그 당시 중국에서는 일반주민들과 학생들의 편리를 위하여 편지, 제문, 고소장 같은 것을 쓰는 방법을 서술한 참고서들을 찍어냈다.

김해산을 따라 조가봉의 집에 가니 지주는 중국음식을 차려놓고 나를 잘 대접해주면서 땅때문에 재판을 걸게 된 사연을 장시간 이야기하였다.

나는 지주에게 중어로 소송문건을 써주고 현에까지 따라나가 그가 재판에서 이기도록 배후에서 조종하였다. 조가봉은 그 소송문건을 가지고 재판에서 이기었다. 그때 그가 재판에서 졌더라면 몇 십정보의 땅을 떼였을 것이다.

그후부터 조가봉은 김선생이 공산당패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김선생은 공산당패가 아니라 아주 좋은 사람이다, 김교사가 아니었더라면 재판에서 질뻔했다고 하면서 나를 절대적으로 옹호하였다. 그 지주는 명절때마다 나를 초청하여 좋은 음식을 대접하군 하였다.

나는 조가봉의 집에 갈 때마다 거기에 찾아오는 많은 중국인 유지들과 낯을 익히고 그들에게 반제국주의 교양을 하였다.

그때부터 오가자에서의 나의 혁명활동이 합법화되고 조선인학교의 운영이 합법화되었으며 이 일대에서의 우리의 혁명투쟁지반이 공고화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유지들을 돌려세운 다음 대중단체들을 혁명적으로 개편하는 사업에 달라붙었다.

먼저 청년회를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하였다. 청년회도 처음에는 민족주의영향하에 있었다. 조선혁명군 소조가 오가자에 간 후 청년회의 핵심성원들이 좀 개명하였지만 아직 모든 면에서 민족주의적인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선 투쟁목적과 과업이 명백치 않았다. 회원수도 적거니와 사업방법도 옳게 서있지 않았다. 활동은 없고 간판만 있는 유명무실한 조직으로서 청년대중을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은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오가자지구는 10리, 20리, 지어는 60리 떨어져있는 마을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청년회는 어느 한 마을에도 지부를 두고 있지 않았다. 이런 사정으로 하여 청년조직이 대중속에 발을 붙일 수 없었고 청년대중을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일부 사람들은 청년회를 당장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하자고 하였다. 많은 청년들이 아직 민족주의자들의 영향하에 있고 또 청년회에도 일정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실정에서 그들의 정치사상적 준비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기성조직을 새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었다.

조선혁명군 대원들은 청년회 간부들과 함께 여러 부락들에 나가 반제청년동맹을 내오기 위한 사상동원사업을 하였다. 그 과정을 통하여 자연히 우리의 혁명로선이 청년군중속에 침투되어갔다. 나도 매일같이 청년들과 담화를 하였다.

이런 준비단계를 거쳐 우리는 삼성학교 교실에서 오가자반제청년동맹을 결성하였다. 동맹은 각 부락들에 지부를 두었다. 동맹위원장으로는 최일천, 조직부장으로는 문조양이 선거되었다.

그후에 농우회가 농민동맹으로 개편되고 소년학우회가 소년탐험대로 개편되었으며 남만여자교육연합회 오가자지부가 부녀회로 개편되어 오가자대중단체들의 사업에서는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개편후 각 조직들은 새 성원들을 많이 받아들이었다. 오가자의 거의 모든 주민들이 해당은 대중조직들에 망라되어 정치생활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방자치행정기관인 존공회도 혁명적인 자치위원회로 개편하였다. 오가자의 선각자들이 존공회를 내온 것은 1920년대 전반기였다. 존공회는 경제교육사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중국관헌들과 상시적인 연계를 맺고 산하에 공주령도자판매소와 같은 기관을 두어 농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해주었다. 오가자 사람들은 존공회일군들이 군중성이 없으며 청백하지 못하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하였다.

나는 농민들과의 담화과정에 존공회일군들이 공주령도자판매소로부터 들어오는 일부 식료품들과 생활필수품들을 농민들에게 골고루 배정해주지 않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면서 뒤로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여부를 확인하려고 공주령에 사람을 보냈더니 그도 돌아와서 존공회가 썩었다고 하였다. 존공회일군들이 농민들한테서 모은 돈을 남용하여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였다. 존공회사업은 그의 존장 혼자서 주관주의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독단이 많이 작용하였고 대중의 의사도 무시되었다. 대중이 참견하지 못하다보니 존공회안에 무슨 허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사람도 생활도 일본새도 다 혁명적으로 개편되고 있는 형편에서 종래의 조직기구와 고루한 사업방법을 가지고서는 존공회가 대중의 요구에 맞게 사업할 수 없었다.

우리는 존공회간부들과 각 부락 존장들, 농민동맹 위원장들이 참가하는 협의회를 열고 존공회사업을 총화하였다. 그 협의회에서는 존공회를 자치위원회로 개편하였다.

자치위원회는 우리의 의도대로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민주주의를 최대한 발양시키는 방향에서 일을 잘 해 나갔다.

우리는 자치위원회산하에 있는 공주령도자판매사업에도 큰 관심을 돌리었다. 오가자 농민들이 쌀을 팔자면 마차나 소달구지를 끌리 100리밖에 있는 공주령에까지 가야 하였다. 쌀값이 떨어질 때에는 적당한 장소에 쌀을 보관해두었다가 값이 오를 때 파는 것이 경제적이었다. 그런데 공주령에는 오가자의 농민들이 쌀을 맡길만한 장소가 없었다. 보관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값을 따지지 않고 아무데나 망탕 쌀을 팔아버리군 하였다. 이런 폐단을 없애려고 오가자의 농민들은 1927년 가을 공주령에 도자판매소를 설치하였다.

우리는 오가자의 대중조직성원들 중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사람들을 도자판매소에 파견하였다. 조선혁명군 대원들 가운데서는 계영춘, 박근원, 김원우와 같은 사람들이 판매소 사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공주령에 파견되었다. 우리가 도자판매소를 장악한 후 이 판매소는 농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해주는 합법적 상업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함께 혁명조직들과의 연계를 보장해주고 조선혁명군에 활동자료를 대주는 공개되지 않은 사명까지 감당하였다.

우리가 존공회를 자치위원회로 개편하고 그 산하에 공주령도자판매사와 같이 혁명을 돕는 합법적 상업기관을 내온 것은 1930년대 초의 혁명투쟁에서 하나의 경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오가자에 있을 때 만주의 여러 지역에 공작원들을 파견하여 조직들을 확대하고 활동판도를 넓혀나갔다. 그때 공작원들은 카이루(개로) 지방에도 여러명 파견되었다. ≪ㅌ·ㄷ≫출신이고 화성의숙 졸업생인 박근원도 그 일대에 가서 얼마동안 활동하였다.

➡

변달환

카이루지방에는 몽골족도 많이 살았다. 문명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카이루사람들은 병이 나도 치료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신에게 빌기만 하였다. 그래서 우리 동무들은 그곳에 갈 때마다 약을 가지고 가서 병난 사람들에게 주군 하였는데 효과가 아주 좋았다. 그후부터 카이루지방에서는 조선사람들이 가면 대우를 잘해주었다.

우리는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각 조직의 책임자들과 핵심성원들을 망라하는 강습을 조직하였다.

나는 차광수, 계영춘 동무들과 함께 매일밤 두세시간씩 엇바꾸어가며 카륜회의에서 제시된 주체적인 혁명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 군중속에서의 정치사업방법, 조직을 확대하고 질적으로 강화하는 방법, 조직성원들에 대한 교양사업방법과 그들의 조직생활을 지도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우리는 강습이 끝난후에도 조직책임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조직을 내오는 방법, 핵심을 육성하는 방법, 분공을 주고 총화하는 방법,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 담화를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사업방법을 배워주었다.

오가자의 지휘성원들은 신심을 가지고 군중속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오가자인민들을 계몽하고 교양하는데도 많은 힘을 기울이었다.

우선 교육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돌리었다.

우리는 조선혁명군 대원들과 지하조직성원들 가운데서 유능한 청년들을 선발하여 삼성학교에 교원으로 배치하고 그들이 주동이 되어 학교의 교육내용을 혁명적으로 개편하게 하였다. 민족주의 사상, 봉건유교 사상을 설교하는 낡은 학과목들이 폐지되고 정치과목으로 새롭게 선정된 것도 우리가 직접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한 다음부터였다. 삼성학교에서 월사금이 폐지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학교의 유지비는 자취위원회에서 대주었다. 취학연령에 해당하는 오가자의 모든 아이들이 그해 겨울부터 월사금을 내지 않고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우리가 훗날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에 의무적인 면비교육에 대한 조항을 하나 넣기는 하였지만 사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무료교육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실천에 옮긴 것은 고유수, 카륜, 오가자에서였다. 오가자의 삼성학교는 카륜의 진명학교, 고유수의 삼광학교와 더불어 우리 나라 교육역사에서 첫 면비교육이 실시된 의의깊은 교육기관이었다.

우리는 학교교육을 받지못하는 청장년들과 부녀자들을 위해서 야학에도 힘을 넣었다.

나는 중심부락 뿐만 아니라 주변부락들에도 야학을 내오고 거기에 모든 청년들을 다 망라시키었다.

우리는 카륜에서 ≪볼쉐위크≫를 발간하던 경험을 살려 오가자에서도 ≪농우≫라는 잡지를 만들어냈다. ≪농우≫는 농민동맹기관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볼쉐위크≫가 좀 이해하기 어렵게 씌여졌다면 ≪농위≫에 실린 글들은 농민들이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체도 간결하고 평이하였다. ≪농우≫도 ≪볼쉐위크≫와 마찬가지로 간도에까지 배포되었다.

우리는 그 때 학생들을 통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혁명적인 노래를 많이 보급하였다. ≪적기가≫나 ≪혁명가≫와 같은 노래도 학교에 가서 한번만 배워주면 그날로 온 마을에 퍼지곤 하였다.

오가자에서는 우리가 무어준 연예대가 있었다. 이 연예대가 계영춘의 지도를 받으면서 삼성학교를 거점으로 활동을 잘하였다. 나도 길림시절부터 쓰기 시작하여 시험적으로 몇차례 련습까지 해본 ≪꽃파는 처녀≫의 대본 완성작업에 달라붙었다. 대본이 완성되자 계영춘이 삼성학교에 조직되어있는 연극조 성원들을 데리고 형상작업을 시작하였다.

우리는 10월 혁명 13돐기념일에 삼성학교 강당에서 이 가극을 공연하였다.

이 가극은 해방 후 오랫동안 파묻혀있다가 1970년 초에 이르러 조직비서의 지도밑에 우리 작가 예술인들에 의하여 영화와 가극, 소설로 각각 완성되어 세상에 공개되었다. 조직비서가 이 때 수고를 많이 하였다.

우리는 오가자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성원 속에서 짧은 기간에 료하농촌을 조선혁명군의 믿음직한 활동기지로 꾸려놓았다. 우리가 길림주변에서도 농민들과의 사업을 하고 장춘근방에서도 농민들과의 사업을 하였지만 오가자에서와 같이 그렇게 철저히 농촌을 혁명화해본 적은 일찌이 없었다.

우리가 오가자에서 해놓은 모든 일에 대해서는 국제당 련락원 김광렬도 경이적인 눈으로 보았다.

우리가 독창적인 혁명로선을 내세우고 자주적인 방법으로 혁명을 개척해나가다나니 국제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주시하였다. 국제당 동방부에서 그 당시 우리에 대하여 많은 론의를 한 것 같다. 조선에 종래의 공산주의자들과는 전혀 다른 새 세대의 혁명가들이 나타났다. 어느 파에도 소속되지 않고 소문도 내지 않으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세력인데 군중지반도 좋다고 한다. 그들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아마 호기심에서 련락원까지 보낸 것 같다.

김광렬은 할빈련락소에 갔다가 오가자에 와서 우리 동무들도 만나보고 혁명조직책임자들도 만나고 유지들도 만나보았다. 많은 사람들과 담화한 후 나와도 만났는데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고무적인 말을 많이 하였다. 그는 조선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운동과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경험을 쌓아올렸다고 하면서 우리가 내놓은 혁명로선과 방침을 적극 지지찬동한다고 하였다.

그는 우리의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에 대하여 아주 놀랍게 생각하였다. 련락원은 지금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는 혁명의 지지자, 동정자를 규정하는 데서 심각한 론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당신들은 완고한 민족주의세력들, 종교인 지어는 자산층들과도 손을 잡으니 이것을 어떻게 리해해야 하는가고 물었다.

나는 련락원에게 소수 공산주의자들이나 로동자, 빈고농의 힘만으로는 혁명을 할 수 없다. 일제를 타도하자면 중간세력까지도 다 동원해야 한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조선에서는 대다수의 민족자본가들과 종교인들까지도 다 외세를 반대하고 있다. 혁명을 달과와하지 않는 세력은 한 줌도 못되는 지주, 예속 자본가들과 친일파, 민족반역자들뿐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동원하여 거족적인 항쟁을 조직하자는 것이다. 조선 사람의 힘으로 조선을 독립하는 비결은 반일을 하는 모든 세력을 다 쟁취하는 데 있다고 말해주었다.

련락원은 그 설명까지 듣고나서 ≪당신은 고전에 구애되지 않고 만사를 독창적으로 처리하는데 나는 그것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나에게 모스크바 류학을 권고하였다.

≪당신은 전도가 양양한 사람인데 실천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해야겠소.≫

그때 김광렬은 나에게 양복과 와이셔스, 넥타이, 구두가 들어있는 트렁크까지 열어보이며 국제당에서 당신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재삼 권고하는 것인데 그 권고에 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아마 그는 국제당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나를 설복하여 모스크바에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온 것 같았다.

나는 김광렬에게 ≪당신들에 나에게 관심을 돌려주어 대단히 고맙지만 나는 동만에 나가 인민들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쏘련에 들어가서 홀레브를 먹게되면 로씨야파가 될 수도 있겠는데 나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조선에 엠엘파요, 화요파요, 서울파요 하는 파가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가슴아픈데 나까지 그런 사람들의 전철을 밟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맑스-레닌주의는 책을 보고 공부할 작정입니다.≫하고 대답하였다.

차광수와 박소심을 비롯한 나의 동무들도 토로즈에서 류학에 필요한 생활필수품들을 다 꾸려놓고 나에게 모스크바에 가라는 권고를 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해 12월 하순 오가자에서 조선혁명군 지휘성원들과 혁명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소집하였다. 우리가 그 회의를 소집한 목적은 카륜회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경험과 교훈을 총화하고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려는 데 있었다.

일본은 군국주의쇠몽둥이를 휘두르며 국력을 총동원하여 새로운 식민지를 확보하고 령토를 팽창하기 위한 침략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길에서 자애로 된다고 인정되는 것은 가차없이 소멸하였다.

우리는 일본이 만주를 치기 전에 동만에 나가서 진지를 차지하고 침략에 맞설 준비를 하려고 하였다. 동만으로 나가자면 중부만주지방에서의 활동을 총화하고 무장투쟁준비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하였다. 그렇게 되어 소집한 것이 오가자회의였다. 이 회의에 조선혁명군의 핵심성원들과 혁명조직책임자들이 다 참가하였다. 간도와 온성, 종성 지구에서 채수항을 비롯한 많은 혁명조직책임자들이 령하 30도의 혹한을 무릅쓰고 오가자로 찾아왔다. 서로 얼굴을 모르고 지내던 숱한 청년혁명가들이 이 회의를 계기로 면목도 익히고 정도 나누면서 조선혁명의 장래를 두고 진지한 토론을 하였다. 회의에서 초점을 두고 론의된 것은 동만에서의 활동을 결정적으로 강화할 데 대한 문제였다. 투쟁의 기본무대를 동만으로 옮기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지향이였다. 그것은 혁명앞에 도래한 정세를 보아도 미룰 수 없는 문제였다. 내가 오가자에 있으면서도 동만을 잊지않고 동만으로 나갈 날을 초조하게 고대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나는 회의에서 항일무장투쟁준비를 다그칠 데 대한 과업과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할 데 대한 과업도 제기하였다. 회의의 전과정은 청년학생운동과 농촌지하운동으로부터 무장투쟁단계에로 이행하여 적들에게 결정적 공세를 가하려는 우리의 결심을 확고히 보여주었다. 카륜회의가 무장으로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을 광복하려는 조선민족의 의사를 집대성하였다면 오가자회의는 그 의사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항일대전의 마당에로 가는 지름길을 밝혀주었다.

오가자회의는 카륜회의로부터 1931년 봄 명월구회의와 송강회의, 겨울 명월구회의를 거쳐 우리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일제와의 결전장으로 가는 다리를 놓아주었다.

우리의 청년학생운동은 1930년에 이르러 마침내 무장투쟁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었다. 오가자는 여기에서 하나의 도약대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내가 오가자를 떠날 때 문조양이 10리밖에까지 따라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바래주었다. (끝)

변대우의 집

혁명촌으로 꾸려졌던 오가자

일화

사람도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1958년 봄이였다. 화창한 봄볕은 넓은 교정을 가득 채우며 교실로 비쳐왔고 푸르른 나뭇가지들 위에선 새들이 즐겁게 우짖고 있었다.

온 교내에 춘풍화기가 짙은데 학교민청지도원의 방에서만은 그렇지 못하였다. 자유주의를 한 민청원들을 불러놓고 호된 추궁을 하는중이였다.

민청지도원의 목소리가 교내를 드르렁거리며 울릴 때 당시 민청부위원장이시던 영도자님께서 사무실에 들어서시였다.

민청원들을 밖으로 내보내신 그분께서는 창가에 서신채 웃으시며 ≪지도원선생님이 본때있게 욕을 해대시더군요, 운동장에서까지 다 들리게요, 여학생들이 민청사무실을 가리키며 지도원선생님이 뿔났다고 쉬쉬 하더군요.≫라고 말씀하시였다.

≪성을 내지 말자 하다가도 그만 … ≫

지도원은 겸연쩍은듯 얼굴을 붉히였다.

그분께서는 심각한 안색으로

≪물론 부정적 현상은 비판해야 하며 비판은 원칙적이고 날카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강한 비판이 높은 어성이나 과격한 언사에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엄하고 부드러운 말로 깨우쳐 주고 타이르는 비판이 더 큰 감화력을 가지는 법입니다.≫

라고 일깨워주시였다.

그분께서는 몇명의 민청원들이 자유주의를 한 것은 남달리 음악을 즐겨하는 그들이 새 명곡을 듣기 위해서였다고 하시고 집체행동에서 빠진 것은 물론 잘못된 일이며 비판을 해야 하지만 민청일군인 우리들로서는 새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청년학생들의 정서적 지향을 응당 이해해 주고 들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민청원들의 결함의 원인을 깊이 알아보고 그에 맞게 처방을 내릴 대신 욕설로써 사업을 대치한 민청지도원의 얼굴에는 심한 자책의 빛이 어려있었다.

그를 이윽토록 바라보시던 영도자님께서는

≪창밖을 가리키시며 좀 보십시오, 꽃송이 위로 맴도는 저 벌과 나비들을, 사람도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벌과 나비를 끄는 저 꽃처럼 … 그래야 군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에게서 향기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인간미입니다, 사상이 견결하고 의지가 굳세고 원칙성이 강한 일군이라도 그가 너그러운 인품과 풍부한 정서가 없는 메마른 인간이라면 군중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청년일군일수록 누구보다 더 인간미가 풍부해야 합니다.≫

라고 뜻이 깊고 매우 교훈적인 말씀을 하시였다.

당시 일부 민청일군들은 학생들 속에서 결함이 나타나면 따뜻이 타일러주고 고쳐나가도록 방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욕설과 추궁을 하거나 집단앞에서 비판이나 주는 식으로 사업하고 있었다.

민청일군들의 이러한 사업방법은 오히려 역작용을 했다. 결함이 있는 일부 민청원들은 집단을 멀리하고 동무들에게 속을 주지 않는 경향들이 나타났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민청일군들의 사업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 절감하시고 몸소 하나하나 고쳐나가시였다.

송시

만수대

밟으신 곳은 백두의 영마루
손들어 가르치시는 우주의 한끝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숭엄함과 아름다움의 절정에
위대한 수령님 서 계시는
만수대

여기서 해가 뜨고 달이 돋고 별이 솟아라
여기서 주체시대의 장엄한 음악이
광대무변한 누리를 진감하여라
사람들의 인생이 여기서 성하고
혁명가들의 생사가 예서 다져지나니

행복하여라
이 언덕에 가슴을 맞대우고
더럽혀지지 않은 양심을 씻어 놓는 사람은
그 또한 영광이어라
곡절 많은 한 생을 여기서 매듭짓고
새 투쟁의 전구로 영생하는 그 이름
안고 가는 만수대

쳐다보며 오를 때에는
모래알처럼 묶셌던 ***데도
돌아서 내릴 때면
산악보다 거창함을 깨닫게 하여주는
오- 만수대
만수대는 인간만세의 무궁한 영마루로
찬연히 빛나거라

흠모

금장도 ≪다마스쿠스 칼≫

금장도 ≪다마스쿠스 칼≫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시리아 작가이며 기자인 무함마드 알 미쑤리가 드린 선물이다.

무함마드 알 미쑤리는 근 30년간 문필활동을 하여오는 진보적 언론인이다.

그는 우리 나라 도처에 일떠서는 대기념비적 창조물들과 끝없는 행복과 찬란한 미래에 대한 확신에 차넘친 조선인민의 밝고 밝은 모습을 볼 때마다 솟구치는 격정을 억제할 수 없어 책 ≪**김정일**주의 위업의 빛나는 계승≫을 썼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빛나는 혁명역사와 위대한 풍모를 폭넓게 수록한 이 책은 다마스쿠스에서 아랍어로 수천 부나 출판된 데 이어 로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로 번역 출판되어 광범한 독자들로부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그는 작가로서의 커다란 긍지와 기쁨을 안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이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책의 특제본을 정성껏 준비하였다.

그의 아내는 1년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오더니 드디어 남편의 소원이 성취되게 되었다고 하면서 여간만 기뻐하지 않았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릴 선물책특제본이 완성되자 미쑤리는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 어딘가 모르게 부족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았다.

세계인민들이 우러러 따르는 시대의 위대한 향도성을 받드는 자신의 지성이 부족한 것만 같았다.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정치 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받드는 투사가 되려는 일념에 불탔다.

그러던 어느 날 호위병을 형상한 조각품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아내의 말에서 번개치 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금장도 ≪다마스쿠스 칼≫이였다.

이 칼은 사람들의 참다운 권리를 보호해 준다는 의미에서 5천년 전부터 시리아인민이 전해오는 전설적 장검으로서 그것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존경을 받고 계시는 그이께서 ≪다마스쿠스 칼≫을 몸 가까이 두고 계신다면 이 칼은 그이를 믿음직하게 보위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언제나 흠모하여마지 않는 그이 곁에 호위병이 되어 서있고 싶어하는 나의 소원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지 않는가.≫

그리하여 미쑤리는 온 가족과 함께 금장도 ≪다마스쿠스 칼≫을 마련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때로부터 그들은 낮과 밤을 이어가며 시리아의 고대박물관들과 토착민들을 찾아 온 나라의 방방곡곡으로 다니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칼은 오랜 세월이 흘러 구하기 힘들다고 하였지만 그들은 좀처럼 신심을 잃지 않았다.

정성이면 돌에도 꽃이 핀다고 미쑤리일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도시의 하나인 다마스쿠스교외의 한 토착민부락에서 금장도 ≪다마스쿠스 칼≫을 찾아내었다.

참으로 칼집에는 시리아인민의 유구한 역사가 스며있음을 보여주듯 5천년 전에 쓰이던 아랍어의 상용문자가 그대로 새겨져있었다.

무함마드 알 미쑤리는 선물을 올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영원한 호위병이 되고 싶습니다.≫

한미호전집단의 무력증강책동

미국의 이지스함

패트리어트 최신 개량형인 PAC-3

이미 보도된 것처럼 국방부는 2012년까지 2조9600억원을 투입해 7000톤급 이지스구축함 3척을 건조하기로 한데 이어 여기에 장착할 이지스방공시스템 3기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할 것을 일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국방부는 한국호전분자들에게 12억달러 상당의 이지스방공시스템 3기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국민과 온 겨레의 통일염원에 대한 난폭한 도전행위라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대결과 전쟁에 환장이 된 한미호전집단의 전쟁광증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용납못할 반평화적이고 반통일적인 행위입니다.

미국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가공할 현대전의 양상으로 볼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이 핵전쟁으로 번져져 민족의 공멸을 초래케 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된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과 온 겨레가 미국과 이 땅의 호전계층의 전쟁책동을 견결히 반대배격해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미호전집단의 무력증강책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북침을 위한 것으로써 종당에는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특히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후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개선움직임과 6.15공동선언이행이 한미호전분자들의 이같은 북침전쟁책동으로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때 한미호전집단의 무력증강책동이 남북의 화해와 관계개선에 그 어떤 악결과를 초래하겠는가 하는 것은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습니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한미호전집단의 무력증강책동이 부시의 북에 대한 ≪악의 축≫망발과 핵선제공격수립이 공개된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적인 북침전쟁연습인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군사훈련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한미호전분자들의 북침전쟁책동이 이미 실천단계에 들어섰으며 이 땅에서 끝내 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려는 야망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제반 사실은 한미호전집단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은 고사하고 핵전쟁의 재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종말을 예고하는 한미호전집단의 이같은 무력증강책동은 추호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공멸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민족의 일치단합에 의한 민족자주통일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것을 명심하고 일치단결해 한미호전분자들의 무모한 무력증강과 북침전쟁책동을 철저히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분기해 나서야 할겁니다.

한미호전분자들은 저들의 무력증강책동이 가져올 파국적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24일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3월 24일

김정일장군님 동정 보도 외국 신문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인민군 제319군부대 군인들의 군사훈련을 보신 소식을 중국의 길림신문 14일자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15일 기니통신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총련의 축하단과 대표단들을 접견하신 소식과 재일조선인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 ≪애국의 꽃≫을 관람하신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 전쟁연습반대투쟁 호소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미침략군의 주도하에 감행되는 대규모 전쟁연습을 반대하는 투쟁에 청년학생들이 앞장설 것을 주장해 21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호소문은 이번 전쟁연습은 철저히 북을 겨냥한 핵공격연습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시가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덤벼들고 있는 것으로 인해 민족의 앞길에는 커다란 위험이 닥쳐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청년학생들이 단결해 반미반전투쟁에 앞장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호소문은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합동군사연습기간 전쟁연습의 지휘처인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타격하는 각종 투쟁과 홍보활동, 사이버시위, 집회 등을 대중적으로 전개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호소문은 우리 민족이 호전광부시를 제압하는 길은 바로 단결에 있다면서 모든 청년학생들은 민족앞에 닥친 위험을 앉아 보고만 있지 말고 반미반전이라는 공동의 구호를 들고 단결하고 투쟁해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앞장서자고 호소했습니다.

호소문은 미군은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즉각 철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0여개 시민노동단체 고이즈미 행각 규탄집회

전국민중연대와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투자협정 세계무역기구반대 국민행동을 비롯한 10여개 시민노동단체들이 공동으로 고이즈미의 서울행각과 때를 같이해 지난 21일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앞과 종묘공원에서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를 가졌습니다.

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일본대사관앞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일치하게 고이즈미의 서울행각은 실제에 있어서 한일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폭로하고 한국경제의 대일종속성을 심화시킬 한일투자협정과 고이즈미방한을 절대 반대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한일투자협정의 본질은 일본이 경제지배를 발판으로 군사적 진출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한일투자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외세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기자회견문이 낭독됐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이 일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당국은 200여명의 경찰병력을 내몰아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아 나섰습니다.

이어 종묘공원에서는 고이즈미의 행각을 규탄하는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집회에는 한일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소속의 일본인들도 참가했습니다.

집회에서는 한일투자협정체결반대, 일본의 군사대국화반대, 역사왜곡규탄, 고이즈미의 방한규탄 집회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결의문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한반도에 대한 전쟁위협과 경제군사적 지배를 강화하려는데 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서울 중구에 있는 한미은행앞까지 행진했습니다.

민주노총 아리랑 공연 참관단 모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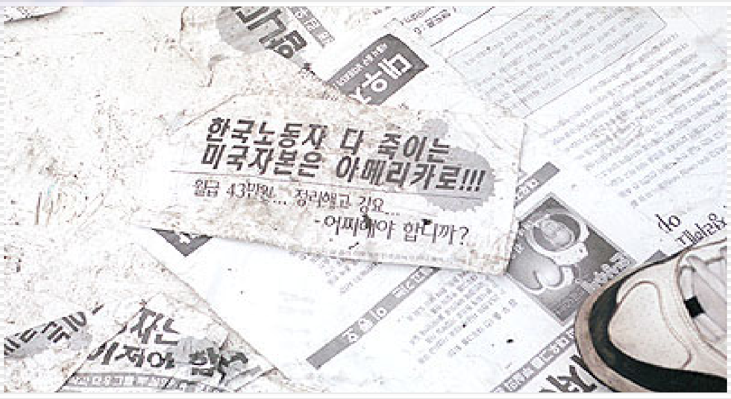
민주노총은 4월 29일부터 6월 20일까지 평양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아리랑≫공연을 참관할 참관단을 모집중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앞서 20일 가맹조직과 산하조직에 허영구위원장 직무대행의 명의로 내달 13일까지 각 연맹 지역별 참가신청서를 중앙으로 취합해달라며 내달초로 예정된 북측과의 실무협상이후 방북일자 등 세부지침을 공개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민주노총은 ≪아리랑≫ 축전에 참가할 참관단을 조직함으로써 자주적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민족의 의지를 세계 만방에 과시하고 남북노동자간 단결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데 앞장서자고 행사참가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매달 15일부터 방북전까지 각 연맹과 지역본부별로 ≪아리랑≫축전 설명회를 한차례이상 개최할 예정이며 ≪아리랑≫축전 안내책자와 통일연대가 보급하는 ≪아리랑≫축전 포스터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시장 외자에 전면개방



외자가 물밀듯이 들어와 한국경제의 중요부문을 거의나 장악하였다.

1997년 말의 통화위기이후 2000년 말까지 한국땅에 흘러들어온 외자는 무려 6백20억달러에 달했다. 이것은 1962년부터 1997년까지 유입된 외자총액 2백46억달러의 2.5배나 된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1백57억달러가 유입됐다. 정말 급진적인 외자유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리하여 외자가 한국의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의 1%에서 지난해에는 8.2%로 높아졌다.

또한 외자가 보유하는 주식총액은 시가총액의 30%를 차지한다.

1997년 당시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에 시장개방과 구조개혁을 강요하였다. 구조개혁으로 기업의 염가판매가 시작되었다. 한국당국은 외자에 합병, 매수를 용인해 주었으며 외국인투자의 제한도 없앴다. 따라서 외자는 금융, 증권으로부터 제조업 등의 기업을 눅거리로 마구 사들였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시가총액은 56조 6,000억원으로서 전체의 30.1%를 차지한다. 1997년 말의 10조 4,000억원으로부터 금액상 5배, 점유율에서는 2배나 늘려났다.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비율은 주택은행 66.5%, 삼성전자 56.6%, 포항종합제철 53.7%, SK텔레콤 48.2%, 현대자동차 42.5%, 삼성화재보험 34% 등으로 압도적이다.

외자는 우량기업만을 골라 집중투자한다. 금융분야에서 외자는 제1은행을 매수하였으며 이밖에도 한미, 외환, 하나, 국민, 주택은행 등 5개 은행에서는 필두 주주로 되고 있다. 제조업에서도 재벌해체로 기업, 공장이 잇달아 매각되었다. 외자는 자동차, 전자, 정보통신, 제유 등 전략적 산업을 거의 자기 손아귀에 쥐

었다.

노키아(핀란드), 홀렛트 팩카드(미국), 소니(일본) 등은 100% 단독투자로 신규기업을 설립하였다. BASF(독일), 모터롤러(미국)등은 한국기업을 합병, 매수방식으로 사들였다.

한국은 종래 외자의 부동산취득을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통화위기로 이 제한조치도 사라지고 말았다.

파이난스센터가 4,450억원으로 매각된 외에 힐튼호텔 등 20여개의 고층건물이 외자의 손에 넘어갔다. 기업들은 현금수익을 개선하기 위해 팔릴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든 닥치는대로 팔려고 혈안이다.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현대그룹은 본사건물을 스태크 인터내슈널(미국)에 15년간 빌려준다는 조건부로 3,000억원에 매각하였다.

부동산에 투자한 대기업은 론스타(미국), 로담코(네덜란드)등 20여개 사의 기관투자가들외에 미금융대규모 모르간스탄레, 골드맨작스 등이다. 1998년 이후 2년반동안에 외자가 사들인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권이나 사무용건물의 취인총액은 8조원에 달한다. 외자는 부동산구입비용의 30%만을 자기 자본으로 충당하므로 실질수익률은 20%를 넘는다.

대일수입제한조치도 2000년 6월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가정용전기제품분야에서 일본제가 판을 치고 있으며 올해부터 일본차도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여기서는 도요다가 선코를 떼고 있다. 담배시장에서도 일본의 마일드 세븐이 시장점유율 10%를 차지하였다. 한국시장은 외국제로 꽉 찼다.

외자의 대대적인 유입은 한국경제에 큰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

외자는 수익우선이고 단기승부를 목적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윤획득만을 노리고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한다.

때문에 증권시장은 외자의 매매로 마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외자는 한국정부당국의 개입을 거부한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순 재력에 의한 대결로서 승부가 판정된다. 따라서 한국시장의 개방은 한국경제를 외국독점자본에 통째로 팔아먹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석학 - 구국전선
주체91, 3월 21일

악의 제국

그럼 이번엔 ≪한겨레≫ 2월 6일자에 실린 본사 손석춘부장의 글 ≪악의 제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임현아씨입니다.

제국주의. 그 말은 우리 국민에게 낯설다. 하물며 ≪미 제국주의≫란 더 말할 나위 없다. 적잖은 독자들이 거부감을 느낄 법하다. 서슬 푸른 친미사대세력은 도끼눈을 부릅뜰 성싶다. 하지만 말은 바로 해야 한다. 제국주의든 미 제국주의든 그 말도 이제 시민권을 찾을 때가 되었다.

왜 우리는 제국주의를 마땅히 제국주의라고 비판하지 못했을까. 이 땅의 신문과 방송 때문이다. 이들은 군부독재가 쫓겨난 뒤 사상의 보안관을 자임하고 나섰다. 제국주의라는 말은 금기시했다. 하지만 엄연한 주권국가들을 ≪악의 축≫으로 악패듯 죄어치는 미국의 조지 부시정권을 보라. 그리고 국어사전을 들춰보라. ≪막강한 군사적, 경제적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짓눌러 자기 나라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경향≫. 제국주의의 사전적 뜻과 부시정권의 모습이 똑 맞아 떨어지지 않는가.

전쟁불사를 공공연히 선포하는 미국의 ≪불량한 태도≫는 우리 겨레 앞에 먹장구름을 예보한다. 아프가니스탄을 초토화한 폭탄들이 텔레비전이 아닌 실제 우리 겨레가 살고 있는 안방에 쏟아질 수 있다. 날뛰는 부시의 광기 탓이다. ≪우방≫ 한국도 안중에 없다. 대체 이 땅이 뉘 땅인가. 그런데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부시의 불장난을 견제해야 할 마당에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거꾸로 기름을 붓는다. 북의 핵무기가 체제방어용이라고 말한 통일부장관을 비난한다. 경악했다며 장관의 자질이 의심스럽단다. 실로 경악스럽다. 한나라당이 제1당이라는 사실이. 실로 의심스럽다. 발행부수 1위 신문의 자질이. 어쩌자는 것인가. 민족이 망하여도 괜찮다는 것인가.

문제의 심각성은 한 철없는 신문사의 주필에게만 있지 않다. 조선일보와 늘 언행을 함께하는 이회창총재의 방미행보도 되새겨볼 때다. 그는 워싱턴에 내리자마자 마음 먹은듯 ≪햇볕≫을 비난했다. 햇볕으로 국민적 합의가 무너졌고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며 미국 매파들을 쫄랑거리며 찾아다녔다.

신문권력과 그에 편승한 원내 1당이 철부지처럼 냉전몰이에 나선 바로 그 순간, 영국의 한 방송사는 고발프로그램을 방영했다. ≪모두 죽여라≫. 미군의 만행으로 이 땅의 어린이도 여성의 몸도 갈기갈기 찢겨졌다. 충북 영동만이 아니었다. 포항 앞의 흰 모래와 초록 바다는 핏빛으로 붉게 물들었다. 마산의 민간인들도 집단학살을 당했다. 달려가는 소녀를 사격해 악몽에 시달린다는 한 미군의 증언도 생생하다. 증언은 이어진다. 흉측한 폭탄 파편이 살 곳곳에 박힌 이 땅의 여인들이 줄이어 화면에 나온다. ≪비비시≫를 국내 뉴스방송에서 몇 초 동안 ≪구경≫해야 하는 심경은 참담하다. 왜 이 나라 방송은, 왜 이 나라 신문은, 그들의 가슴저린 증언을 담아내지 못했는가. 기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없이 참담한 오늘이다. 독자 앞에, 역사 앞에 석고대죄하고 싶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전쟁을 위협하며 대한민국에 낡은 전투기를 팔겠다는 미 군산복합체의 장삿속이든, 공화당의 검은 돈 추문을 벗어날 속셈이든, 부시에게 겨레의 뜻을 결연히 보여줄 때이다. 이회창총재와 수구언론이 여론을 왜곡한다면, 그리고 누구의 눈치만 살핀다면, 누가 나서야 할까. 민주, 진보세력과 청년이다. 이 땅에서 어떤 불장난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겨레의 결기를 부시가 깨닫게 해줘야 한다.

그래서다. 건전한 보수주의자들에게도 정녕 묻고 싶다. 여성과 어린이까지 마구 학살하고 백범암살에 개입하고 그런데도 사과할 대신 진상을 은폐하고 더 나아가 새 전쟁을 꿈꾸는 미국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악의 제국≫보다 더 적실한 이름이 있는가. 그 제국주의에 추파를 던지고 용춤추며 나라와 겨레는 결딴나든 말든 제 잇속만 자자손손 챙기겠다는 수구세력에게도 우리 모두 제 이름을 불러줄 때다. 매국배족세력이라고.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21일~23일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3월 24일

침략자에게 무자비한 징벌 결의 각지 현장규탄집회

미제와 남조선호전세력들이 벌려 놓은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폭로단죄하는 현장규탄집회가 각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 개성고려인삼술공장, 김책공업종합대학, 강계제2사범대학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연설자들은 미제와 남조선호전분자들이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머리우에 또다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 오려는 용납 못할 전쟁도발책동이라고 단죄하였다.

지금 미제침략자들의 광란적인 북침전쟁소동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정세는 극히 위험한 전쟁접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화약내 짙은 전쟁연습이 어느 시각에 우리 공화국을 침공하는 전면전쟁으로 번져 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연설자들은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 버리려는것이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립장이라고 하면서 로동계급과 청년대학생들은 일단 명령만 내리면 마치와 펜을 총으로 바꾸어 잡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무용예술과 관련한 도서들 출판

문학예술출판사에서는 지난 기간 주체의 무용예술분야에 쌓아올린 조선로동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반영한 수많은 도서들을 출판하였다.

그중에는 4대명작무용총보 ≪조국의 진달래≫와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의 노래≫ 종합총보 ≪강선의 노을≫, ≪달맞이≫, ≪부채춤≫, ≪장고춤≫, ≪목동과 처녀≫ 등 70여편의 무용작품들이 편집된 도서들이 있다.

이 총보들과 무용소품집들은 우리 식 무용표기부호를 리용하여 무용작품들을 오늘만이 아니라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없이 보존하고 재현할수 있게 편집되여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 식의 무용표기법을 만들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과학적이며 통속적인 주체적무용표기법을 창제하도록 하시였다.

도서들에는 무용형상에 필요한 음악과 의상, 소도구들도 구체적으로 표기되여 있다.

도서 ≪무용표기법≫은 우리 식 무용표기부호들의 창제원칙과 그 결합방법들을 과학적으로 해설하고 상대관계표기방법과 무용총보작성방법에 이르기까지 무용실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알기 쉽게 서술되여 있다.

출판사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몸소 창작하시고 지도해 주신 무용작품들에 대한 해설과 무용동작들을 수록한 도서 ≪항일혁명무용동작≫을 비롯한 도서들도 편집출판하였다.

이와 함께 혁명가극 ≪피바다≫, ≪꽃 파는 처녀≫, ≪당의 참된 딸≫, ≪밀림아 이야기하라≫ 종합총보들과 민족가극 ≪춘향전≫ 종합총보에는 음악총보, 무용총보, 무대미술총보, 무대원화 및 의상소도구, 장면사진, 대사에 이르기까지 작품의 모든 요소들이 특색 있게 편집되여 있다.

제국주의와 끝까지 싸우려는 것은 조선인민의 혁명적립장 로동신문

≪로동신문≫ 24일부는 제국주의침략전쟁에 대한 견결한 혁명적립장을 확립하는것은 현시기 조성된 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충성으로 받들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침략전쟁은 혁명전쟁으로, 불은 불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전쟁관점의 핵이라고 지적하였다.

론설은 제국주의침략전쟁에 대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견결한 혁명적립장은 두차례의 준엄한 반제대전의 불길속에서 억세여 지고 근 반세기동안 횡포한 미제와의 치렬한 대결속에서 벼리여 진것으로 하여 그 어떤 힘으로도 꺾을수 없는 사회주의 조선의 기개로, 원쑤들과의 그 어떤 대결전에서도 백승할수 있게 하는 정신력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론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제국주의침략전쟁에 대한 우리 인민의 견결한 혁명적립장은 조선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추호의 용서도 없이 무자비하게 짓뭉개 버리려는 결사의 각오에서 과시되고 있다.

전쟁에 대한 우리 인민의 혁명적립장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군인대중중심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리론, 천만대군을 한사람같이 원쑤격멸에로 불러 일으키는 비범한 통솔력과 그 어떤 광풍이 불어 와도 드놀줄 모르는 혁명적신념과 불굴의 의지, 불리한 전국을 순간에 역전시키는 단호한 결단력과 신묘한 지략, 병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은 우리 시대 명장이 지녀야 할 품격과 자질의 최고귀감으로 되고 있다.

제국주의침략전쟁에 대한 우리 인민의 견결한 혁명적립장은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려는 견인불발의 의지에서 발현되고 있다.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뿐아니라 군사적힘으로 제압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갈수 있게 하는 만능의 보검이며 우리 시대의 가장 위력한 사회주의정치방식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밑에 오늘 우리의 정치사상적, 군사적위력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다.

최후의 승리는 언제나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것이다.

신문들 통합전쟁연습 규탄

24일부 이곳 신문들은 미제의 대조선침략전쟁각본에 따라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이번 전쟁연습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고 세계에 대한 패권전략을 실현하려는 부쉬패당의 대조선침략정책의 산물이라고 지적하였다.

≪로동신문≫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번의 통합전쟁연습은 ≪9.11사건≫을 계기로 반테로라는 전쟁의 합법적간판을 내걸게 된 부쉬패거리들이 조선반도의 지정학적요인과 우리에 대한 뿌리깊은 적대감으로부터 출발한것으로서 군사연습으로 위장된 북침전쟁광란이다.

외세가 동족을 전쟁으로 덮치려 하고 민족을 핵참화속에 빠뜨리려 한다는것이 명백한 지금 동족의 편에 서지는 못할망정 외세의 전쟁책동에 추종해 나서는 것은 조선사람이기를 그만둔 자들만이 할수 있는 세상에 더 없는 역적행위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민족앞에 불뭉치를 들고 나선것은 민족반역, 반통일행위를 하는 대가로 외세의 비호를 받아 잔명을 부지하려는 범죄적속심의 발로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다.

우리 민족은 미제와 남조선호전세력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침략자들이 이 땅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우리를 해치려고 미쳐 날뛰는 외세는 물론 그에 추종해 나서는 자들도 자기들의 반역행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민주조선≫ 론평의 필자는 우리는 우리 공화국과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해 보려고 미쳐 날뛰는 미제와 남조선의 호전분자들을 그냥 두지 않을것이며 침략자들을 단호히 소탕하고야 말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합동군사연습 규탄성명 ≪한민전≫대변인

서울에서의 ≪구국의 소리≫ 방송에 의하면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대변인은 남조선에서 대규모전쟁연습을 감행하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을 규탄하여 2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이번 합동군사훈련은 그 규모와 내용, 성격에 있어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훨씬 릉가하는 핵예비전쟁이며 철두철미 핵선제타격에 의한 북침전면전쟁을 가상한 침략공격훈련이라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이번 합동군사훈련을 우리 민족을 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 넣으려는 극악한 침략전쟁의 전주곡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로 락인하고 준렬히 단죄규탄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민족공멸의 참혹한 결과밖에 가져 올것이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각계 애국민중은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이 엄숙한 시각에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 들고 거족적인 반미, 반전투쟁에 결연히 분기해 나서야 할 것이다.

6.15선언 지지, 미군철수 요구 국제적서명운동 계속 확대

6.15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요구하는 국제적서명운동이 10일부터 18일까지 기간에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과 지역기구들에서 광범히 진행되였다.

수리아에서는 민족진보전선 서기장과 전선산하 아랍사회주의동맹당 총비서, 아랍사회주의자운동 총비서, 통일사회주의자당 총비서가, 팔레스티나에서는 해방민주주의전선을 대표하여 대외관계책임자가, 기네에서는 119만 3,272명의 성원들을 대표하여 통일진보당 전국청년리사회 부위원장이, 레바논에서는 민주청년동맹 위원장이 서명문에 각각 수표하였다.

에티오피아에서는 1만 4,000명의 각계층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아디스 ≪아이벡스≫호텔 부지배인, 아디스어문학교 교장, ≪자유기업≫회사 사장, ≪민족은행≫ 검사장, 베르타건설회사 지배인이 서명문에 수표하였다.

우간다에서는 우간다전국운동 서기국 대외관계국 부국장, 주체사상연구 우간다전국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부 상급고문, 우간다전국대학생협회 위원장을 비롯한 80여명의 인사들이 서명문에 수표하였다.

한편 인권을 위한 아프리카, 아시아변호사련맹에서는 1만 5,000명의 련맹성원들을 대표하여 위원장이 서명문에 수표하였다.

청년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받드는 결사대

로동신문 사설 주체91, 3월 21일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뜻 깊게 맞이하기 위한 총 돌격전을 벌리고 있는 시기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자회가 성대히 진행되게 된다. 이번 대표자회는 우리 청년동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 따라 새 세기의 혁명적진군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위력을 떨쳐 나가려는 우리 청년들의 드팀 없는 신념과 의지를 온 세상에 힘 있게 과시하는 력사적인 계기로 된다.

지금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민족최대의 경사가 겹친 뜻 깊은 해에 열리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자회를 열렬히 축하하고 있으며 대표자회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 청년동맹이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강위력한 주체의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된 때로부터 6년이 지나갔다.

지난 6년간은 우리 청년동맹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어버이수령님의 청년운동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되여 온 자랑스러운 로정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청년동맹은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청년동맹으로 되여야 하며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김일성동지께서 밝혀 주신 길을 따라 주체의 청년운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주체의 청년운동의 개척자이시며 령도자이시다.

일찌기 청년사업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문제를 혁명의 성패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우리 나라 청년운동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청년운동을 혁명위업수행의 관건적고리로 여기시고 몸소 청년동맹을 무으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주체적인 청년운동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고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나라 청년운동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 오시였다.

우리 청년들을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꽃으로, 사회의 가장 활력 있는 부대로 내세워 주시고 걸음걸음 손 잡아 이끌어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손길이 있어 우리 청년운동은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속에서도 사소한 헛갈림도 없이 언제나 승리의 한길을 걸어 올수 있었으며 우리 청년들은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자라날수 있었다. 조선혁명의 개척기로부터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독창적인 청년중시의 사상과 령도로 우리 청년들을 당의 청년전위로, 미래의 역군으로 키워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존엄 높은 이름과 더불어 만대에 빛을 뿌릴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청년중시사상은 오늘 우리 청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우리 청년운동의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청년대오의 주체사상화를 청년동맹의 총적임무로 제시하시고 우리 청년동맹을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 오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특히 선군의 기치높이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며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해 나가시는 준엄한 나날에도 청년중시를 일관한 전략적로선으로 틀어 쥐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여 오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령도는 우리 청년동맹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시도록 하시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사명과 임무에 대하여≫,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자≫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우리 청년동맹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 주신 주체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 나가도록 이끌어 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도 뜨겁게 어려 있다. 우리 청년동맹과 청년들을 당의 미더운 길동무라고 불러 주시며 어려운 시기에도 청년들을 위한 큰 대회도 마련해 주시고 대기념비적창조물건설도 통채로 맡겨 주시여 청년들을 창조와 건설의 영웅으로 키워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청년운동사에 뜨겁게 아로새겨 져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청년중시의 사상과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청년대오는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무조건 관철해 나가는 수령옹위의 결정체로 튼튼히 다져 지게 되였다.

세찬 불길속에 서슴없이 뛰여 들어 혁명전통의 귀중한 재보를 지켜 내고 망망대해에서 ≪**김정일**장군 만세≫를 웨치며 최후를 마친 수령결사옹위투사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대규모토지정리전투와 광명성제염소건설, 청년영웅도로건설을 비롯한 강성대국건설의 여러 전투장들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선구자들은 다름 아닌 위대한 장군님께서 키워 주신 선군시대의 우리 청년들이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걸어 온 로정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만을 끝없이 숭배하고 따르는 충성의 청년대오로 억세게 자라난 영광스러운 로정이였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한 긍지 높은 로정이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혁명의 전위부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나갈것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 청년운동은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 섰다. 오늘의 시대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는 위대한 선군시대이다. 선군시대에 살며 투쟁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사상, 선군정치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것보다 더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는 없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면 자주적인간의 삶을 누리고 그것을 버리면 노예가 된다는것은 준엄한 시련속에서 우리 인민과 청년들의 가슴마다에 억척같이 다져 진 혁명의 고귀한 진리이다.

우리의 전체 청년들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 와도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것을 맨 앞장에서 구현하는 결사대가 되여야 한다.

수령결사옹위는 우리 청년동맹의 제일생명이며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 나가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청년동맹을 영원히 수령의 청년동맹으로 빛내이는 길도 수령결사옹위에 있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 청년들의 운명과 미래도 수령결사옹위에 있다. 모든 청년들은 우리 수령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가 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대숭배심을 깊이 간직하고 오로지 장군님과 마음도 뜻도 하나, 운명도 하나가 되는 순결의 인간, 순결의 동지가 되여야 한다.

우리 청년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 온 조선청년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깊이 체득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운동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운동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청년들속에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이 엮어 지던 나날에 청년운동사에 아로새겨 진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중시사상과 령도의 현명성과 불멸의 업적을 깊이 심어 주어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은 모든 청년들을 절해고도에서도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을 불 태우고 단두대우에서도 위대한 장군님 만세를 높이 부르는 2000년대의 ≪ㅌ. ㄷ≫열혈투사로 억세게 준비시켜야 한다.

우리 사상제일주의를 틀어 쥐고 청년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은 21세기 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전투적기치이다.

청년들속에서 주체사상원리교양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은 청년들을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사상과 선군업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우리 식으로 살아 나가게 하기 위한 교양, 언어와 풍습, 생활양식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성을 살리고 우리의것을 적극 살려 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로선을 높이 받들고 우리 군대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이 앞장에 서도록 하여야 한다.

선군시대에 살며 혁명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총대를 사랑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군대가 되는것보다 더 큰 영예는 없다. 최고의 충성도, 최대의 애국도 조국보위에 있다. 청년들은 인민군대에 복무하는것을 가장 영예롭고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인민군대에 적극 탄원입대하며 군사복무를 성실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군인들은 전투정치훈련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더욱 힘 있게 벌려 인민군대를 혁명의 수뇌부옹위의 제1선대오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만들며 전군에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하고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데 앞장 서야 한다.

세기는 바뀌고 세대는 교체되여도 혁명의 과녁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

모든 청년들은 날로 격화되는 적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과 새 전쟁도발책동에 혁명적경각성을 높이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군사를 성실히 배워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청년들속에서 계급의식을 심어 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더욱 힘 있게 벌려야 한다. 신천박물관을 비롯한 계급교양거점들을 잘 리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야수적본성을 똑바로 알려 주어 그들을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불 타는 증오심과 적

(11면에 계속)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30회
학사 리광 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3월 24일

안녕하십니까. 전번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공화국을 과학기술강국으로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의 인민들은 간고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인민생활문제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끝임없는 사색과 크나큰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노래를 조용히 불러보곤 합니다.

아침을 맞으시며 펼치는 사색 언제나 인민 위해 시작되어라
한밤을 지새시며 이어지는 사색 언제나 조국 위해 깊어지어라
인민을 위해 조국을 위해 걸으시는 그 길에 어버이 장군님 **김정일**장군님 한생이 있네

이 노래는 보천보 전자악단에서 형상한 가요, ≪그이의 한생≫입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위인상이 안겨오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리 인민은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장군님의 은정속에 변모된 이 땅의 모습을 깊은 감회 속에 그려보곤 합니다. 전국 도처에 건설된 세계적 수준의 가금목장, 소목장, 타조목장, 닭공장들과 메기공장, 양어장들 그리고 즉석국수공장과 위생자재공장, 주사기공장, 기초식품공장, 정제소금공장들과 동해안의 광명성제염소, 또한 현대적 기술이 도입된 면경과 박천의 견직공장들과 신의주화장품공장, 평양시내를 달리는 궤도전차들과 버스들, 새로 건설되는 수많은 살림집들과 휴양소, 요양소들 정말 참으로 놀랍기만한 현실입니다. 이 수많은 창조물들마다에는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끝임없는 혼신의 자욱을 새겨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업적들을 한두시간에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였던 인민들의 식생활문제를 풀기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심혈과 노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합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인민생활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식생활문제는 사람들의 생존과 창조적 활동의 가장 기초적이고 선차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옷은 잘 입지 못해도 참을 수 있지만 배고픈 것과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식생활 문제가 풀려야 모든 살림살이가 풀리고 인민들이 보다 높은 열의를 내여 혁명과업 수행에 떨쳐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의 식생활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어떻게 조직영도하셨는가 하는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인민들의 식생활 문제를 풀기 위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영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인민들이 감자가공음식을 많이 만들어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7 1998년부터 해마다 이름난 감자농사 고장인 양강도 대홍단군을 찾으시고 감사농사문제 뿐아니라 감자를 주식물로 전환시키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에게 다양한 감자음식을 생산공급해서 식생활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자면 감자음식을 공업적 방법으로 생산하여야 한다는 것, 포장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 감자가공에 대한 연구사업을 잘해야 한다는 것, 감자술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비롯해서 전문가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감자음식가공과 공급에서 성과가 이룩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면서 친히 감자도 보내주시고 감자음식의 맛까지 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자가공품들을 일군들에게 보여주어 그들의 눈을 틔어주도록 하여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러한 크나큰 관심과 지도에 의하여 수많은 감자음식들이 만들어져 인민들의 식탁을 더욱 윤택하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전국 감자요리경연도 자주 조직되고 여기서 좋은 경험들이 온 나라에 일반화되여 인민들의 식생활개선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인민들의 식생활문제를 풀기 위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영도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양어를 대대적으로 해서 많은 물고기를 생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던 시기에 벌써 21세기를 내다보시고 몇해 안에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로 양어를 세계적 수준에 끌어올릴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 있는 양어장들을 단순히 환원복구하지 말고 현대적으로 개건확장하며 새로운 양어장들을 더 많이 건설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어사업에 필요한 물고기 종자와 사료문제를 직접 해결해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자신께서는 인민들에게 메기를 먹이자고 한다시며 메기양어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과 경계해야할 점까지 몸소 가르쳐주셨고 더운물 온천이 있는 곳에서는 다 메기를 기르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주체89 2000년 5월, 몸소 새로 건설된 메기공장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우리나라에는 온천이 많기 때문에 메기양어에 대단히 유리하다고 하시면서 현재 있는 온천들을 적극 이용하는 것과 함께 더운 물 온천을 빠짐없이 찾아내여 메기기르기를 전군중적 운동으로 광범히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러한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전국에 이르는 곳마다 현대적인 양어장들이 일떠서고 양어를 전사회적으로 적극 장려하는 사업들이 활기있게 벌어져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습니다.

식생활문제는 사람들의 생존과 창조적 활동의 가장 기초적이고 선차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옷은 잘 입지 못해도 참을 수 있지만 배고픈 것과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식생활 문제가 풀려야 모든 살림살이가 풀리고 인민들이 보다 높은 열의를 내여 혁명과업 수행에 떨쳐나설 수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인민들의 식생활 문제를 풀기 위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영도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기초식품 생산문제를 결정적으로 풀도록 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초식품 생산문제를 풀기 위하여 기초식품공장들을 현대적으로 꾸려 인민들에게 맛좋은 간장, 된장, 맛내기들을 생산공급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기초식품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소금문제를 풀기 위하여 정제소금공장을 도처에 건설하도록 하셨을 뿐아니라 5000년 민족사에 처음으로 되는 동해안지구소금밭 건설의 새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함경남도에서 건설한 광명소 제염소입니다. 사실, 제염소 건설은 자연의 횡포한 광란을 이겨내야 하는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일부사람들은 함경남도에서 밥을 먹겠는가, 소금을 먹겠는가고 하면서 뒤걸음질쳤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때에 도 자체의 힘을 가지고 과연 해낼 수 있겠는가고 동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셨습니다. 함경남도에서 금년만에 소금밭을 건설한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적으로 지지한다.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적극 지지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대책을 다 세워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은 가장 어렵던 시기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대자연개조공사를 보란듯이 해제낄 수 있는 힘의 원천으로 되었습니다. 그러시고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8 1999년 10월, 완공된 광명성제염소에 찾아오시여 이 제염소 건설은 우리 당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일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셨습니다. 또한, 제염소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기업들을 관리운영 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몸소 헤아려보시고 다 풀어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실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다 주시고도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헤아려 기념사진까지 찍어 주셨습니다. 그날 장군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사람들 중에는 장군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어린이를 안고 사진을 찍은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함경남도 7월11일청년전위결사대 신흥군 대대의 류승국, 이용복 부부와 그들의 딸 유소금이였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기념사진을 찍은데는 가슴 뜨거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 기념촬영장에 이르신 장군님께서는 너무도 송구스러워 몸둘바를 몰라하는 그들에게로 다가가시여 딸애의 이름을 다정히 불러주시며 아이가 귀엽게 생겼다고 볼도 다정히 다독여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소금밭의 영원한 주인으로 뿌리내린 그들의 소행이 너무도 대견하시여 자신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세워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셨습니다. 인민들의 소금문제 때문에 얼마나 마음 쓰셨으면 우리 장군님께서 이처럼 이 나라의 평범한 제염공 부부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셨겠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지지도를 마치고 떠나시면서도 헤여지기 아쉬워하는 제염소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차창으로 손을 저어 주셨습니다. 제염소의 노동계급은 끝없는 감격의 눈물속에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서며 소금증산으로 장군님을 받들어 갈 굳은 맹세를 다졌습니다.

참으로 오늘 이땅 위에 펼쳐지는 위대한 전변은 우리 인민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온갖 심혈을 다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의 고귀한 결정체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러한 현명한 영도가 있기에 우리 인민은 멀지 않은 가까운 앞날에 강성대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우고 세상에 부럼없는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이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2의 천리마대진군 운동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북 특사파견과 6.15 공동선언 이행문제

정부는 25일 남북 합의에 따라 임동원(林東源)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를 4월 첫째주에 북한에 특사로 파견하는 것과 관련, ≪한반도 긴장조성을 예방하며, 6.15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 문제 등 제반 현안에 관해 남북 최고당국자간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방송도 이날 남한 특사의 평양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쌍방은 민족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와 함께 서로 관심하는 북남관계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표는 특사파견에서 지난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6.15 남북 공동선언 이행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북 강경정책으로 북.미관계가 냉각되자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6.15 공동선언의 이행문제를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5일 6.15 남북 공동선언을 ≪지키면 통일이고 빼앗기면 분열≫이라며 민족 대단결을 통한 공동선언 이행을 호소했다.

북한은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대해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로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원칙≫과 통일방안 논의 등에 합의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선언을 ≪민족자주선언≫.≪통일지향선언≫.≪민족대단합선언≫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22일 평양에서 개최된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에서 통일문제와 관련해 ≪3대 호소≫와 ≪3대 제의≫를 제시했다. ≪3대 호소≫는 △남북 공동선언의 철저한 고수 및 이행 △남북관계 진전 및 통일운동 활성화 △통일을 방해하는 요인 제거로 요약되는데 북한은 이를 ≪조국통일의 중대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3대 제의≫는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6월 15일을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 △5~8월 기간을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으로 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연초부터 ≪우리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민족공조≫와 외세배격 등을 주장해 왔다.

즉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자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라면서 6.15 공동선언을 ≪민족자주통일의 길을 밝힌 자주통일선언≫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공동선언 1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북한의 시각은 미국이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다각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훼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남북관계의 교착국면도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의 결과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것도 모두 미국의 ≪모험적인 전쟁정책≫에 기인되고 있다는 것이 북한 입장이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지난 12일자에서 ≪거족적인 투쟁≫으로 민족의 안전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 민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본요인으로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북침전쟁 도발책동 △남한 호전분자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언급한 것은 6.15 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두환 기자
2002/03/25 연합뉴스

남측 대통령특사 방북 전망

다음 주중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할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의 가장 큰 과제는 미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외교노선으로 야기된 한반도 긴장상태의 해소이다.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해 1월 취임 이후 북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또 전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사실상 무효화시키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해 3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부시 대통령은 지난 1월말 연두 의회연설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 국가로 지목함으로써 대북 적대시정책을 분명히 했다. 또 이달 초 발표된 핵태세준비보고서(NPR)에서는 북한을 미핵 선제공격의 대상국으로 공식지명했으며 지난 19일에는 94년 북미 기본합의 이후 클린턴 행정부가 연례적으로 취해온 ≪북한 핵동결 준수 보증≫을 철회했다. 이는 북미관계 개선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네바합의의 파기까지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여진다.

따라서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전임 클린턴 행정부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며 최악의 경우 전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실제로 임동원 특보는 지난 주 한 특강에서 현재의 상황이 계속될 경우 93, 94년에 준하는 위기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김대중 정부가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평양을 방문하는 임동원 특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 특사는 우선 지난 2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있었던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 결과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북 양측은 5월말 한국에서 개최되는 월드컵과 4월말 북한에서 열릴 아리랑 축전 등에서 남북 양측의 화해와 협력을 과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가 주시하는 대규모 축제에서 남북의 협력 모습을 보이는 것만큼 더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는 없기 때문이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월드컵 개막식 참가, 또는 한국 고위급 인사의 아리랑축전 참가 등도 그같은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민간차원에서도 월드컵 및 아리랑 축전을 남북간의 평화이벤트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아리랑 축전과 관련해서는 남측 참가 인원이나 수송방법, 일정, 비용 문제 등에 관해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며 북측 민간 축하사절의 월드컵 개막식 참가, 개막식 직전 남북 여자 축구 경기 개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남북간 합의 사항의 이행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9월 서울에서 열린 5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는 경의선 철도 연결,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 활성화 등 9개 사항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호 등의 문제가 걸려 있어 대부분의 북한전문가들은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임동원 대통령 특사의 평양 방문에는 양측 최고위당국자의 의중이 실려 있는 만큼 예상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인규 기자
2002/03/25 프레시안

(9면에서 계속)

개심을 지닌 계급의 전위투사로 키워야 한다.

청년들은 우리 제도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높이 떨쳐야 한다.

청년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가장 활력 있는 부대이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보람찬 전투장은 우리 청년들의 활무대이다. 강성대국건설에서 청년들이 떨쳐 일어 나 기세를 돋구고 혁신을 일으켜야 온 나라가 혁명적앙양으로 들끓게 할수 있고 새 세기의 혁명적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갈수 있다.

모든 청년동맹일군들과 청년들은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맨손과 등짐으로 청년영웅도로를 일떠세우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영웅적위훈과 기적을 창조해 나가던 그 기백, 그 기세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꽃 피우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 나가야 한다.

청년들은 과학기술시대의 요구에 맞게 정보기술을 비롯한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고 ≪청년과학기술행군≫을 비롯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 있게 벌려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 없는 혁신을 창조해야 한다. 청년과학자, 기술자들은 혁신적인 안목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현대과학기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며 인민경제의 기술개건과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은 청년돌격대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는 충성의 애국운동으로 더욱 발전시켜 청년동맹의 기발이 휘날리는 곳마다에서 21세기의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 **김정일**시대의 청년영웅들이 더 많이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모든 청년동맹일군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사상관점을 가지고 사업방법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 와야 한다. 청년동맹일군들은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청년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하며 청년들과의 사업을 그들의 포부와 지향, 사상감정에 맞게 참신하고 패기 있게 전투적으로 벌려 나가야 한다.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청년동맹사업이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잘 진행되도록 당적지도를 실속 있게 하여야 한다.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자립성을 높여 주어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창발적으로 하도록 적극 도와 주어야 한다. 초급일군들의 사업권위를 보장해 주고 그들이 활기 있게 일해 나가도록 적극 밀어 주어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일관하게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를 베풀고 있으며 청년동맹일군들과 청년들에 대한 당의 신임과 기대는 매우 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은 끝없이 휘황찬란하다.

전체 청년일군들과 청년들은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새 세기의 혁명적진군에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기발을 높이 휘날리며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가야 할것이다.

차세대전투기 기종 선정 초읽기 돌입

그간 많은 논란을 빚어온 국방부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방부는 25일부터 차세대전투기 사업의 기종선정을 위한 종합평가에 돌입, F-X사업의 최종 결정을 남겨둔 상태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언론 등에서는 끊임없이 외압설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차세대 전투기의 기종으로 F-15K가 선정할 것이라는 말이 나돌자 참여연대・경실련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도 같은 날 공동집회를 열고 F-X 기종선정 연기와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하면서 ≪고물전투기가 국민세금 삼킨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한겨레신문≫은 25일 ≪미 보잉사의 F-15K가 절충교역 기준에 미달했다≫는 사실을 보도해 F-X사업의 종합평가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

FX사업 응찰기종에 대한 최종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21명은 25일부터 서울 모처로 합숙에 들어가 이르면 27일쯤, 늦어도 29일에는 종합된 결과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FX 기종 평가 종합을 위한 평가위원들의 합숙은 지난 21일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군 기밀 유출 사건 등에 대한 수사로 인해 공군과 국방연구원 등의 평가가 늦어져 전체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FX사업에 대한 1단계 평가는 국방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공군・국방조달본부 등 4개 기관별로 지난 23일까지 이뤄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평가 결과의 외부누출을 차단하기 위해 평가위원들의 외출을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F-15K 전투기를 후보기종으로 제안한 미국 보잉사의 절충교역 비율이 국방부가 요구한 의무비율인 70%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겨레≫는 25일자에서 군 관계자의 말을 빌어 ≪국방부 산하 국방조달본부가 지난달 맺은 가계약가격을 기초로 정확한 절충교역 비율을 최근 계산한 결과, 미 보잉 F-15K 전투기의 절충교역 비율은 64.2%(프랫 앤드 휘트니 엔진 사용시) 또는 64.6%(제너럴 일렉트릭 엔진 사용시)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런 결과는 국방부가 최근 ≪기술이전 등을 위한 절충교역 협상 결과 4개 기종 모두 군 요구수준(계약가의 70%)을 충족했다≫고 발표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국방부가 지난해 9월7일 평가기관들에게 보낸 공문 ≪차기전투기 기종결정 평가방안 작성 지시≫에서 ≪정책적 고려요소에 포함될 항목은 군 요구성능(ROC)과 목표기준 미달시 기타 항목의 우열에 관계없이 탈락처리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절충교역 기준에 미달한 미 보잉 F-15K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한편 기무사는 지난 22일 차세대전투기(F-X)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프랑스 다소항공사의 한국 홍보대행사인 ≪알프레드 커뮤니케이션≫ 사무실과 회사 대표, 직원들의 자택을 동시 수색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다소 항공 국제협력 담당 부사장인 이브 로빈스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라팔 인터내셔널과 관련을 맺고 있는 그 어떤 회사도 이번 군사기밀 누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알프레드 커뮤니케이션의 정상적인 홍보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이번 압수, 수색에 대해 강력 항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종기종 선정이 임박해 있고 우리의 주요한 경쟁사가 한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싣고 있는 상황에서 라팔 인터내셔널의 홍보활동에 차질을 주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면서 ≪압수된 물품과 문서를 즉각 되돌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F-X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25일 오후 12시에 탑골공원에서 ≪F-X사업 의혹 규명과 연기를 촉구≫하는 공동집회를 열고 F-X 기종선정 연기와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F-X사업은 납세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F-X 기종선정 연기를 촉구하고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해병대 대위 출신으로 집회에 참여했던 박용현 경실련통일협회 민족화해 아카데미 회장은 ≪95년도에 상륙형 돌격 장갑차 구매 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다≫면서 ≪그때 당시 대우에서 만든 장갑차에 몇몇 기술만 결합하면 미국에서 직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합참과 국방부가 압력을 넣어서 장갑차를 미국에서 직구매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크기 1.5m의 모형 고물전투기가 국민세금을 삼킨다는 것을 형상화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제정의실천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이 참가했다.

공희정 임경환 기자
2002/03/25 오마이뉴스

北아리랑축전 사전취재 외국기자 25명 방북

북한이 오는 4월말부터 6월말까지 평양에서 10만명 이상을 동원하여 개최하는 ≪아리랑축전≫을 사전 취재하기 위해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외국 기자 25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26일 북한을 방문한다.

사전 취재단에는 AFP, 로이터, 일본 NHK, 영국 BBC 방송, 중국 언론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평양 고려호텔에 체류하며 아리랑축전 사전준비 상황을 취재하고 축제 기간 개방될 북한 일대 관광코스를 견학한다.

북측은 한국과 미국 기자의 사전 취재는 축제 분위기를 흐릴것을 우려해 허용하지 않았다.

이상민 특파원
2002/03/25 연합뉴스

≪공무원노조 탄압≫ 강경투쟁 경고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 공동대책위(공대위)는 25일 오전 영등포구 전교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회견문에서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된 공무원노조 창립 대의원대회에 경찰력을 투입해 진압한 것은 폭거≫라며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해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는 한편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2002/03/25 연합뉴스

발전파업 《대량해고》로 가는가

파업 29일째이자 최종 복귀시한인 25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이 4천명에 육박하면서 발전파업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사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미복귀 조합원을 전원 해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징계절차에 착수, 노사분규 사상 전례없는 대량해고가 기정사실화됐다.

노사는 지난 23-24일 밤새 협상을 시도했지만 민영화를 놓고 서로 두터운 벽을 재확인한 채 헤어졌고 25일 0시 집회중이던 연세대에 경찰을 투입, 강제해산시켰지만 복귀자는 크게 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전력수급대책을 발표하고 발전회사 인원 외에 추가로 900여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경력직 500명을 채용하고 군 인력 400명을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유흥업소의 전기사용 제한이나 송전차단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전력 성수기는 월드컵이 열리는 5월말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해고 규모 4천명 안팎 될 듯= 이날 오전 9시 현재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은 전체 5천591명 가운데 3천912명으로 사측은 잠정집계했다.

이 중에는 이미 2차례에 걸쳐 해임이 확정된 197명이 포함돼 있다.

사측은 해임절차가 진행중인 404명을 포함해 나머지 해임 대상에 대해 이미 해임된 조합원처럼 3차례씩의 소명기회를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소명과정에 참여할 경우 징계수위가 조절될 여지는 남아 있지만 소명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해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사측은 보고 있다.

지금까지 197명을 해임하는데 3주 가량 걸린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인원에 대해 단계적으로 징계절차를 마무리하는데는 상당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노-사.정 왜 타협 못했나= 이같은 대량해고를 초래한 발전노조의 파업은 임금이나 복리후생 문제가 쟁점이 됐다기보다는 민영화정책이 도마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와 사측은 단협이 타결될 경우 어느 정도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지만 노조의 《진의》는 민영화 철회에 있었다.

노조는 민영화가 이뤄질 경우 전기요금이 오르고 기간산업의 일부가 외국 자본에 넘어가고 전력수급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경쟁체제 도입으로 전기요금이 내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며 전력수급도 안전장치를 만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면서 노조가 민영화로 인해 고용불안을 느낀다면 이를 최대한 보장해 주겠다고 설득했다.

파업으로 정책을 철회시키겠다는 노조의 요구는 집권 초반부터 4대부분 개혁을 추진해온 정부의 정책기조를 뒤흔들고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정부는 이번 파업이 월드컵과 양대선거 등을 앞두고 올해 노동계의 《대세》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민영화 불변》, 《무노무임》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공언, 민노총과의 《확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월드컵.성수기 전력수급 제대로 이뤄질까= 정부와 사측은 군 인력을 포함한 대체인력 투입과 확보를 통해 나름대로 자신감을 쌓아가고 있지만 발전소의 파행운영은 거듭되고 있다.

이날 현재 정비중이거나 정비가 중단된 발전기가 24기 567만kW, 정비후에 가동대기중인 것이 3기에 75만kW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전력성수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월드컵 개최 시기부터 수급 불안이 생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6월 이후부터는 전력성수기인 하절기에 접어들게 되고 월드컵 등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하게 돼 최소한 900여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력직 공채와 군 인력 투입 등 대체인력 확보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 핵심운전인력의 부족에 따라 발전기 재가동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5개 발전회사 공동으로 특별기동팀을 구성키로 하는 한편 9월말로 예정된 태안6호기의 준공시기를 7월말로 앞당길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성수기에도 13-20%의 예비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필요할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유흥업소의 전기사용 제한을 검토하는 한편 예비전력이 100만kW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송전 차단도 고려중이다.

이와 관련, 한전은 1~3급까지 3단계의 수급경보를 발령하는데, 우선 3급의 경우 예비전력이 200만-300만kW일 경우 비상대기에 들어가고 예비전력 100만-200만kW의 2급이 발령되면 발전기 출력을 높이고 민간발전소에 추가가동을 요청하게 된다.

예비전력 100만kW 미만의 1급은 광역정전이 우려되는 준전시 상황인 만큼 사전 에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고객별, 선로별로 부하조정에 들어가 전력공급 일부가 제한되지만 지금껏 발령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2002/03/25 연합뉴스

범대위, 4천여명 대량해고 규탄집회 열어

《국가기간사산업 민영화(사유화)·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명동성당 한빛은행 앞에서 3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발전파업 지지와 4천여명의 발전노조원들에 대한 대량해고를 반대하는 규탄집회를 가졌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이 자리에서 《발전노조원들의 파업은 나라의 전기대란을 막는 애국적 행위이며, 발전노동자들이야말로 국가기간사업이 외국으로 팔려나가는 것을 막는 독립운동가들이다》며 발전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허영구 직무대행도 《발전사업을 매각하는 것은 이나라의 전기대란을 일으키자는 것》이리며, 《해외에서도 성공 사례가 없는 발전산업을 매각하겠다는 정부는 두차례나 일장적으로 협상을 거부한데 이어 이제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하겠다는 초강경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노동계의 더 큰 반발만을 야기할 뿐이다》며 정부 대량해고방침에 강력히 반발, 해고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서울화력발전 지부장 민삼식씨의 부인, 발전노조 서울가족대책위 천현정씨는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우리 남편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은 임금인상이나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발전산업을 매각하겠다는 것 하나를 두고 싸우고 있다》고 주장, 《집단 이기주의가 아닌 애국자로 봐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정부는 한달가량 이어지고 있는 발전노조원들의 파업에 대해 오늘 오전 9시까지 북귀하지 않으면 4천여명 가량의 조합원에 대한 대량징계를 하겠다는 초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산개하여 농성을 벌리던 발전노조원들은 이러한 정부 방침에 분개 어제밤 늦은 시각 연세대에서 집결, 대규모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거세게 반발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부 방침이 두어차례나 협상을 일장적으로 거부한데 이어 상식선에서 벗어난 초강경대응이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어 이후 귀추가 주목된다.

최범수 기자
2002/03/25 유뉴스

발전노조, 대화 촉구

발전산업노조 이호동 위원장은 사측이 미복귀 노조원에 대한 해임절차에 들어간 25일 오후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사측에 조건없는 대화와 협상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회견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결의를 위한 대의원 대회가 내일로 다가왔다》면서 《노정간 극한 대립과 전력대란을 우려하며 정부와 사측에 조건없는 대화와 협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각계 사회원로와 시민단체, 국회를 비롯한 전 국민의 권고를 존중하며, 국가기간산업을 떠받치는 자랑스러운 발전 노동자로서 발전소 매각으로 인해 발생할 《전력대란》을 막기위해 대화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등 42개 단체도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노동자 전원해고, 무더기 구속, 손해배상 청구, 진압경찰 투입 등 강경탄압으로도 발전노동자의 투쟁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우 기자
2002/03/25

양대노총, 대화통한 해결 촉구

발전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노.사 및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공무원노조 출범을 폭력적으로 탄압한데 이어 발전노조원들의 농성을 강제 해산시키고 해고 위협을 가하는 등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4천여명의 조합원 해고라는 파국을 막기위해 정부는 노조와 마지막 대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미복귀 조합원에 대한 전원 해고라는 정부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실제 복귀한 조합원은 수백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가 잘못된 파업 대응책을 거두고 대화를 통한 새로운 수습책을 내놓을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한 기자
2002/03/25 연합뉴스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악의 축≫ 전쟁위협을 계기로 이 곳 남녘 땅 여기 저기서는 전쟁반대, 부시방한 반대운동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무려 600여 개의 사회단체들이 거족적으로 참여했고 수많은 개인 차원의 참여가 줄을 이었다. 잇달아 동계올림픽대회에서 한국선수 김동성의 금메달이 ≪강탈당했다≫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수백만의 한국네티즌이 미국을 향해 집중포화를 터뜨렸다.

≪1919년 3월 1일은 일제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고자했던 그 날입니다. 2002년 3월1일은 미국에 의해 실추돼버린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날로 만듭시다≫라면서 미국에 대한 제2의 독립운동을 촉구하는 바람이 독립운동가 조문기 옹에서부터 10대 후반의 젊은이들에게까지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비록 한줌밖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 참전경찰전우회 등은 참석자들에게 돈 봉투까지 돌리면서 부시환영대회를 벌렸고 경제단체들은 신문에 큼직한 광고라는 돈 덩어리로 환영을 표시했다.

이러한 反美 바람이 80년대 광주학살 이후 6월항쟁까지 거세게 일어나다 세계화 국면에서 멈칫하더니 21세기 초입을 맞아 재연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또한 비록 일부의 지배세력과 그들의 행동대였던 군과 경찰 등의 퇴물이긴 하지만 전쟁광 부시를 환영하는 것도 우리 현대사의 오염된 부문이 밖으로 드러난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라는 외세는 결코 남녘 땅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다. 또 일시적으로 등장하는 단막배우도 아니다. 그래서 남과 북에 자리잡고 있는 미국의 실체와 현대사 전반에 걸친 미국의 그림자를 규명하는 작업과 더불어 한미관계를 새로이 자리매김하려는 시급히 요구된다.

한반도 속의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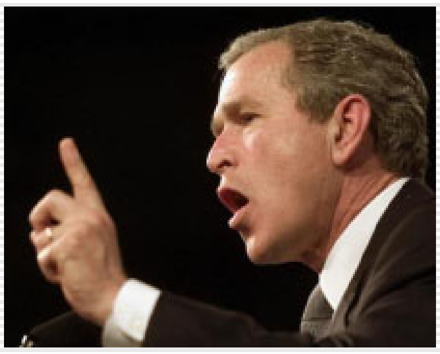
미국이라는 외세는 우리 현대사의 결정적인 굽이굽이마다 핵심적인 결정권자와 지배자로 군림해 왔다. 이러한 미국의 한반도 개입은 1945년 8월 해방이 되자말자 조선사람 어느 누구와도 상의 한번 없이 자기들 멋대로 조선을 38도선에서 양쪽으로 두 동강을 내는 지리적 분단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2년 악의 축으로 한반도 전체를 전쟁의 공포 속으로 밀어넣는 이 시점까지 줄곧 남의 나라에서 마치 그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 왔다. 이 땅에 놓여 있는 미국이라는 외세의 발자취를 미국사람의 눈과 미국화 되어버린 친미사대주의라는 남의 눈으로가 아니라 민족중심적인 눈, 곧 우리 자신들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 현대사의 첫 출발인 해방공간을 보자. 해방공간의 민족사적 과제는 첫째, 일제 식민지 통치기간에 구축된 식민지 잔재와 친일파의 청산이었다. 둘째는 미국의 주도에 의해 두 동강이 난 분단을 해소하여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인의 염원과 과제는 미군정에 의해 철저하게 분쇄되고 결국 친일파 중에 친일파인 박정희가 대통령까지 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그 결과 우리는 6.25라는 민족상잔까지 겪는 참화 속에 빠졌고, 반세기가 넘도록 분단과 적대가 남북 사이에 가로놓이게 되었다.

현대사의 첫 단추가 잘 못 꿰어지자 그 후과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비교적 최근만 보더라도 1980년의 5.18항쟁에서 전두환 정치군부 지원, 1987년 6월 항쟁에서는 이민우 구상에서부터 6.29선언에 이르는 예방(수동)혁명의 추진, 걸프전쟁이후의 ≪제2의 한국전쟁≫시나리오, 1994년 6월 전쟁일보직전까지 치닫게 하였던 영변핵위기, 1997년의 IMF경제신탁통치, 1998-1999년의 ≪3-4월위기설≫로 일컬어지는 금창리핵위기 등에까지 이른다. 그러다 부시라는 전쟁광이 집권하자 말자 ≪악의 축≫ 전쟁위협으로 우리 민족 전체를 공멸시킬 전쟁의 공포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악의 축≫ 전쟁위협과 부시방한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 모두는 남의 나라 대통령인 부시의 악의 축 발언으로 삽시간에 전쟁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연두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중심 축≫의 하나로 규정했고, 연이어 ≪북한 등에 모든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기습전쟁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잇달아 북한을 겨냥하고 있는 미국의 가공할 핵무기나 군사무기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군사력을 후퇴시키라고 윽박지르면서 사실상 북한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다. 소수자라기보다는 미국의 주류보다 더 주류로 행사하는 라이스 안보보좌관은 ≪사정을 봐주는 식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전쟁 광적인 정책을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을 ≪누가 이를 악마가 아니라고 주장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미국정부의 의무는 공격이 취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공격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습공격을 부추겼다. 의회를 비롯해 미국국민의 80% 가 넘게 우리의 고귀한 생명권을 짓밟아버릴 한반도 전쟁위협에 박수갈채를 보이면서 막가파식 부시에게 백지수표를 위임했다.

북한이 테러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주한미국대사도 인정한 것처럼 전쟁빌미가 되지 않으니까 13.6억불의 군사비를 쓰는 북한의 재래식무기를 250배가 넘는 3400억불의 군사비를 쓰는 미국 또 10배인 151억불을 쓰는 남한에 위협이 된다고 후방으로 배치하고 감축하라고 강압했다. 그러면서 남한에게는 F-15K 등 무려 100억불의 무기를 강매하고 MD체제에 편입시키려 한다. 무려 6천기의 전략핵무기와 온갖 대량살상무기는 독과점하고 있는 미국이 한 줌에 불과한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라고 길길이 띠고 있다. 제 정신을 가진 사람과 나라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1998-1999년 미국은 금창리 핵개발 의혹을 빌미로 1990년대 세 번째의 한반도 전쟁위기를 초래했다. 그러나 정작 사찰을 해 본 결과 사실무근임이 판명되었다. 단순한 미국의 의혹제기에 한반도가 전쟁일보직전의 위기 상황으로 몰리는 게 우리의 운명이란 말인가? 럼스펠드 보고서는 1998년 7월 북한이 5년 이내에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을 파괴한다고 했으나 이는 조작임이 드러났다. 사실무근과 조작으로 미국은 불과 2-3년 전에도 한반도에 전쟁위협을 벌렸던 것이다.

이러한 데도 작금의 황당무계한 대북한 전쟁위협 빌미를 사실인양 부화뇌동하는 이 땅의 주류언론과 주류정치인들은 과연 어느 나라의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언론인가? 이들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은 물론 세계 제1의 미사일 수출국≫이며 CIA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년에도 핵무기 기술을 확보하려했고, 최소한 1, 2개의 핵무기를 만들 만한 플루토늄을 생산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햇볕정책 때문에 한미간의 이견이 생겼으며 올바른 길은 햇볕정책을 버리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따르라는 것이다.

또 한 대표적인 정치인은 미국까지 가서 이들 전쟁광 앞에서 북한 핵에 대한 특별사찰을 받을 것을 주장하여 미국의 충실한 대변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특별사찰을 요구하는 것은 북미제네바협정 위배이고 국제원자력기구 협정 위배이다. 이런 것도 모르는 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다.

북한이 1억 불도 되지 않는 무기수출국인데 미국을 제키고 ≪세계 제1의 미사일 수출국≫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정당이 과연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인가? 또한 94년 이후 북미제네바협정에 의해 일체의 플루토늄 생산이 중단되어 있고 북한이 이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측도 인정하고 세계가 다 공인하는 사실인데 플루토늄을 생산해 왔다는 CIA주장만 금과옥조처럼 되풀이하는 이들의 지적 능력은 초등학교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 아닌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미국과 북한간의 북 · 미 전쟁으로 끝날 수 없다. 전쟁은 주한미군이 중심이 되고 작전지휘권도 없는 한국군은 원하든 아니든 미군의 작전지휘를 받아 자동적으로 미국의 전쟁에 동원되어 우리 북한동포에 총 뿌리를 겨눠야 한다. 그 결과는 미국과 한반도 사이의 전쟁이며 남이든 북이든 우리 민족은 대부분 처참한 죽음에 내몰리게 된다. 이런 점에서 남북은 한반도 전쟁에 관한 한 운명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으며 북쪽만 죽고 남쪽은 살수 있다는 희망은 망상에 불과하다.

탈미 자존(脫美 自存)의 길

부시의 방한을 맞아 정부는 제대로 된 목소리하나 내지 못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앵무새처럼 외쳐댔다. 반세기이상 줄기차게 한미동맹에 매달린 결과가 바로 전쟁공포라는 통탄할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한국의 주류언론이나 정치인들은 한미동맹 한미동맹을 읊조린다. 미국인보다 더 미국인다운 이들 사대주의 무리들에게 전쟁위기를 막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오직 600여 개의 사회단체, 민중, 그리고 젊은 학생들이 성남공항에서부터 도라산역까지 모든 역량을 전쟁방지에 집결하는 단호한 대처만이 이 막가파식 전쟁놀음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이번 부시 방한을 맞아 똑똑히 보여주었다.

세계사적인 탈냉전과 민족사적인 통일시대를 맞아 우리의 당면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한반도 속의 미국을 탈냉전적 순응물로 만드는 것이다. 냉전전사 미국의 철옹성 같은 모습도 6월항쟁에서는 6.29선언이라는 수동혁명을 제안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영변핵위기에서는 북한의 민족자주적 대응으로 수모를 당하는 꼴이 되었다. 금창리 핵위기에도 김대중 정권의 포용정책은 미국의 허를 찔러 민족안보를 도모했다. 또 악의 화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전쟁의 광풍을 휘몰고 오려던 막가파 부시도 전쟁반대와 미국반대를 외치는 우리들의 단호하고 결집된 부라림에 겁을 집어먹고 꼬리를 슬쩍 내렸다.

이 곳 땅에서 미국이라는 야만적 패권주의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우리가 우리일 것을 거부하는 자아 소멸과 자아해체≫를 단호히 배격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기 긍정, 곧 탈미자존(脫美 自存)으로 우리는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 이럴 때만 미국의 야만성, 제국주의성, 반역사성, 일방주의, 황야의 무법자성 등이 이 곳 우리 땅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강정구
2002/03/22 민중의 소리

진보정당건설에 대하여2 (5)

≪4. 왜 민족해방계열만의 진보정당을 따로 건설하면 안됩니까?

변혁운동은 본성상 단결을 지향하며 큰 덩어리로 단결할수록 커다란 힘을 발휘하며 승리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법입니다. 비록 민중민주계열이 한국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사상에서 교조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민족해방계열이 우선적으로 연대연합하여 단결하여야 할 변혁운동상의 동지들입니다. 만약 민족해방계열이 자체세력만으로 진보정당을 건설한다면 민중민주계열도 자체세력을 결집하며 또 다른 진보정당을 건설할 것이며 이는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한국변혁운동의 분열상을 더욱 고착화시킬 것입니다. 그 결과는 변혁역량의 고립약화이며 공안파쇼당국의 탄압에 의한 와해일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민주노동당이라는 계파의 구별이 없이 수십개 정파가 모여 건설한 진보정당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민족해방계열만의 진보정당건설은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민주노동당내에 있는 일부 민중민주계열들은 전국연합과 한총련이 민주노동당에 결합한다는 사실에 크게 동요하며 향후 민족해방계열의 당내 패권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때일수록 자주시대의 향도이념과 과학적인 변혁이론으로 무장하며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계승한다고 자부하는 민족해방계열은 패권적인 일체의 인상을 주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허심하고 겸손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생운동의 주류이자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총련이 민주노동당에 결합할 때 이점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 입당하는 한총련운동가들은 먼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여 헌신적인 활동으로 오늘의 민주노동당을 만드는데 기여한 다른 계열동지들에게 예의를 다해야 할 것이며 절대 주도권을 다투거나 패권을 장악하려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5. 민주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은 ≪선거변혁≫이라는 개량주의노선에 빠지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 민족민주세력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전망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면서 지난기간 ≪전선무용론≫이나 ≪선거변혁론≫과 같은 개량주의노선을 배격하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랜 사상투쟁과 변혁실천을 통하여 민족민주세력의 절대다수는 선거를 통해 변혁을 이룩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말하여 오직 이란 회교혁명식의 범국민반미항전, 반미전민항쟁으로만 한국변혁이 가능하다는 변혁노선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향후 대규모의 강력한 민족민주전선을 건설하는 합법적인 주체세력이라고 하는 견해도 결국 범국민반미항전만이 유일한 변혁적 투쟁노선이라는 견실한 사상관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의 선거 및 의회 활동은 전민항쟁을 지향하는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대중화하고 합법화하며 결정적으로 촉진할 것입니다. 비록 민주노동당의 일부 활동가들 중에는 여전히 ≪선거변혁≫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활동가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선거변혁≫의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전민항쟁노선을 견지하는 견실한 운동가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6. 왜 그간 학생운동권에서는 민주노동당노선을 개량주의노선이라고 비판하였습니까?

이는 변절자 김영환을 비롯한 일부 운동권이 진보정당건설을 개량주의적 관점에서 추진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개량주의세력과의 사상전을 중시하였던 학생운동권이 그 관성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90년대 중반 쏘련동구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이북마저 제국주의포위환속에서 고난의 행군을 할 때 민족민주세력의 일부 기회주의자들은 그릇된 사상전략적 관점과 개인의 공명출세주의적 야심에서 개량주의적인 진보정당건설노선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총련을 비롯한 사람사랑계열의 학생운동가들이 이에 적극 동조하며 학생운동의 변혁성을 거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헤겔철학이 반동적이라고 그 변증법적 긍정성마저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개량주의자들이 주장하였다고 해서 진보정당노선자체가 개량주의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총련을 주도하는 학생운동가들, 곧 ≪한총련주도운동가≫들은 오랫동안 ≪민주노동당노선은 개량주의노선≫이라는 도식을 고집하며 널리 퍼뜨림으로써 현재의 상당수 학생운동가들이 이러한 도식을 고정관념처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총련주도운동가≫들조차 입장을 선회하여 민주노동당결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처럼 지난 기간 왜곡된 견해를 퍼뜨린 책임에 대하여 ≪한총련주도운동가≫들은 허심하게 총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총화사업으로부터 민주노동당결합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응당한 순서로 될 것입니다. 한편 민주노동당내에는 ≪선거변혁≫의 환상에 젖어있거나 궁극적 변혁을 지향하지 않는 개량주의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중운동을 당차원으로 끌어올리며 자주민주통일운동을 대중화하고 한국민족민주세력, 한국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이룩하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진보정당의 의의를 폄하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며 전

→

광고

PDF자료집

반조선일보

조선일보해부
조선일보 그 행적을 알아본다 /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이 민족사에 끼친 죄악
조선일보의 국가안보상업주의 곡필과 오보 10선
조선일보 인권, 노동, 사회 관련 왜곡 편파보도 사례

글
수구언론 청산돼야 / 노동자 모욕하는 조선일보 박살내자
겸허한 반성만이 조선일보 명예를 지키는 일
조선일보를 미국법정에서 심판하겠다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목소리
대학생 설문조사 - 조선일보 평생구독거부동참 36.4%

성명
진정한 언론개혁으로 민주와 통일시대 참언론을 일으키자 ≪언론개혁 6월 선언≫
부문별 선언문

반조선일보투쟁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와 지식인선언
군중운동으로 확산
1년, 풍성한 결실속에 전진 결의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반통일세력의 준동을 투쟁으로 분쇄하자(주체 89년 12월 8일)
조선일보는 이회창패당의 기관지(주체 90년 8월 25일)

위당을 따르는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상당수 운동가들이 개량주의노선이라고 비난하는 진보정당이야말로 범국민반미항전을 추동하는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의 합법적인 주체세력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진보정당건설에 앞장서 왔습니다. 진보정당은 자주민주통일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한국변혁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7. 민주노동당을 강화하면 향후 선거를 통해 변혁을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민주노동당이 아무리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통한 변혁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세계변혁사와 브라질노동자당의 경험입니다. 특히 브라질노동자당은 지자제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그 당수인 룰라가 대선에서도 세번씩이나 참여하며 적지 않은 득표를 하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으며 그 후유증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거변혁≫이라는 환상속에 치루어지는 선거는 승리할 수도 없고 심각한 패배의식만 양산한다는 것을 중요한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미제국주의가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두고 생명선처럼 여기는 철저한 식민지반자본주의국가로서 선거변혁은 절대 환상입니다. 한국변혁운동의 승리는 이미 전위당과 주체의 변혁이론이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대로 오직 범국민반미항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선거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바로 범국민반미항전을 추동하는 무기입니다. 즉 민주노동당은 범국민반미항전을 추동할 대규모의 강력한 민족민주전선을 건설하는 합법적인 주체세력으로서 향후 자신의 대중투쟁과 선거 및 의회 활동을 통하여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당차원으로 끌어올리며 대중화, 합법화함으로써 범국민반미항전을 결정적으로 촉진할 것입니다. 물론 이란회교혁명처럼 범국민반미항전이 이루어진 직후 수립될 임시적 성격의 자주적 민주정부는 추후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해 완전한 합법성을 띠는 공고한 자주적 민주정부로 전화발전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변혁적 제 단계를 거치면서 자신의 성격과 임무를 변화발전시킬 것이며 전민항쟁 이후 민족민주세력이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권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란회교혁명과 해방직후 이북의 민주주의정권이 수립되고 공고화되는 과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8. 민주노동당과 전국연합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민주노동당은 말그대로 합법적인 진보정당이며 전국연합은 이에 비해 반합법적인 전선조직입니다. 민주노동당이 기본적으로 자주민주통일을 강령으로 하고 광범한 대중을 지반으로 하는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을 지향한다고 볼 때 그 이념에서도 별 차이가 없지만 통일전선적 조직이라는데서도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노동당과 전국연합은 합법적인 진보정당과 반합법적인 민족민주전선이라는 뚜렷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태상 민주노동당은 합법정당이며 전국연합은 전선조직입니다. 그리고 활동방법상 민주노동당은 일상적인 정치활동이든 선거 및 의회활동이든 기본적으로 합법적으로 활동한다면 전국연합은 제도정치권 밖에서 반합법적인 대중정치투쟁을 전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주민주통일이라는 강령과 노농학기본군중과 광범한 중간층을 대중지반으로 한다는 공통성으로 하여 두 조직이 적극 연대하고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필연이고 당연합니다. 전국연합과 민주노동당의 결합은 전국연합에게는 정치세력화의 숙원을 해결하는 계기로 될 것이며 민주노동당에게는 광범한 대중적 지반을 축성하는 계기로 될 것입니다. 한편 지난 혁신정당, 진보정당 건설의 경험이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축성하지 못한 진보정당은 식민지파쇼세력의 공안탄압 등으로 쉽게 와해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때 민주노동당이 각계대중조직을 비롯하여 전국연합과 같은 역사 깊고 역량 있는 민족민주전선과 밀접히 결합하여 활동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올해초 대의원대회에서 전국연합과의 결합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재창당≫을 선언한 바 있으며 전국연합도 이에 화답하듯이 비슷한 시기의 대의원대회에서 진보정당건설을 결의하고 최근에는 구체적 결합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전국연합의 결합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전국연합에 결합하고 있는 전농의 연대연합만이 아니라 각각 전국연합과 민주노동당으로의 교차가입을 추동할 것이라 예견됩니다. 향후 민주노동당은 전국연합과 더불어 대규모의 위력한 민족민주전선을 건설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고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대중투쟁과 선거 및 의회투쟁을 활성화하며 결국 범국민반미항전으로 육박해 들어갈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연합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다는 말은 정확하지 못한 표현으로서 최근 논의결정된 전국연합의 민주노동당에의 결합은 전국연합 관련한 활동가들이 개별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입당한다는 말이지 전국연합이 통째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입≫대신 ≪결합≫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9. 왜 민주노동당을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사업의 합법적인 주체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현재 민주노총이 제한된 수자의 노동대중만을 포괄하며 시민단체들로부터 경원시되는 조건, 전국연합이 지역간연합체의 한계를 조만간 극복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향후 범국민반미항전을 추동할 대규모의 민족민주전선을 건설하는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할 가장 적합한 주체세력은 바로 민주노동당이라는 견해입니다.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로 결성되고 진보적 이념을 소유한 민주노동당은 지난 총선에서 무시못할 잠재력을 발휘하는가 하면 선거 이후에도 당세가 부단히 확장하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정당입니다. 민주노동당이 향후 자주민주통일의 지향을 뚜렷이 하고 광범한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축성한다면 국제통일전선의 경험을 보나 지난 60년 민족자주평화통일협의회건설경험을 보나 대규모의 민족민주전선체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최적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원칙적으로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의 주체세력은 응당 변혁적 전위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변혁적 전위당은 지하당의 형태로 비합활동만을 전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주체세력으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민주통일의 강령이나 노농학기본군중과 광범한 중간층을 대중적 지반으로 하는 민주노동당의 주동적 역할로 대규모의 위력한 민족민주전선체가 건설되는 과정은 곧 전위당의 지도가 관철되는 과정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전위당이 비합으로 존재하는 조건에서 민주노동당은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의 합법적인 주체세력으로서의 역사적 임무를 다할 것입니다.

10.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는 큰 덩어리의 통일전선체를 건설하는 주체세력은 ≪원칙상 변혁적 전위조직≫이라고 하였는데 왜 민주노동당을 주체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한민전이 90년대 초에 발간하였던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서 지적한 대로 큰 덩어리의 통일전선사업의 주체세력은 ≪원칙상 변혁적 전위조직≫입니다. 그러나 한국민중의 애국적 전위대인 한민전이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비합법적으로 존재하는 조건에서 큰 덩어리의 통일전선체를 건설하는 ≪합법적인≫ 주체세력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한편 80년대 중반에 집필되고 회람된 통일혁명당의 내부문건 ≪통일전선론≫에 밝혀져 있듯이 합법적인 진보정당은 통일전선사업의 주체세력으로 됩니다. 한민전의 강령인 자주민주통일을 정치이념으로 삼고 한민전의 대중지반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그리고 광범한 중간층에 의거하는 애국적이며 통일전선적인 합법정당은 비록 한민전처럼 철저한 변혁적인 전위정당은 아니지만 자신의 우월한 당조직체계를 통하여 통일전선사업에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60년 4.19봉기 직후 결성된 사회당, 사회대중당이 당시 40개 단체를 결집하여 민족자주평화통일협의회라는 큰 덩어리의 통일전선체를 건설한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민주노동당이야말로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사업의 합법적인 주체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 비합법 전위정당과 합법적 진보정당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어찌 비합법 전위조직의 성원이 아닌 우리들이 그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체의 변혁이론과 당건설이론에 의거하고 몇가지 사실을 근거로 추리해 볼 뿐입니다. 비합법 전위정당과 합법적인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은 그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합법형태와 합법형태, 정예분자들의 조직과 광범한 대중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적인 조직이라는 차이가 있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는 한 한민전이라는 전위조직이 비합법형태를 띠고 정수분자들만을 망라하는 지하당의 형태로 존재할 것이란 점은 명백합니다. 한편 한민전, 곧 한국민족민주전선은 비록 전선적 명칭이지만 분명 전위당이며 민주노동당은 비록 정당적 명칭이지만 통일전선적인 조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점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변혁운동의 참모부로서의 변혁정당은 오직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며 수십년간 한국변혁운동을 편향없이 영도하여온 한민전 뿐입니다.

12. 한민전은 왜 ≪구국의 소리≫ 방송을 통하여 민주노동당을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의 주체세력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한민전의 구국의 소리 방송은 미제국주의자들과 파쇼공안당국도 다 듣는 공개방송입니다. 전세계혁명사를 보아도 전위조직이 공개방송을 통하여 자신의 전략전술을 다 공개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민전의 구국의 소리 방송에 민주노동당이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의 주체세력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절대화한다면 교조주의적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는 한민전방송에 나오지 않는 견해는 무조건 오류라고 보는 것과 같은 잘못된 견해라고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견해가 주체의 전략전술에 부합하고 한국변혁의 현실에 조응하는가 여부일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견해가 한민전의 방송이 가지는 중대한 의의를 무시하는 견해가 아니라는 점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만약 우리가 한민전의 ≪구국의 소리≫방송이 가지는 이러한 결정적 의의를 부정하거나 홀시했다면 지난 1년 가까이 공안당국의 탄압을 초래하면서까지 위험한 방송 녹취문건을 통신상에 올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서도 밝혔듯이 통일혁명당은 80년대 중반 ≪통일전선론≫이라는 내부문건을 통하여 통일전선에 대한 지하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 문건에서 합법적인 진보정당의 의의를 강조하며 합법적인 주체세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조선노동당창건 기념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방북했던 단체들 중 이북의 의견대로 맨처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린 단체는 바로 민주노동당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이나 한민전의 구국의 소리 방송에서 여러 단체와 민주노동당을 한차원에서 열거할 때 민주노동당을 앞세우며 강조하는 것도 자주 목격됩니다.

이런 점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선노동당이나 한민전이 얼마나 민주노동당을 중시하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한총련운동가들을 위한 진보정당건설 관련 일문일답 1, 통일여명 편집국 2001 9 22)

통일여명 편집위원 한철규 발췌 (편집국 보도 64호)